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74 1982년3월18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March 1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MAR 2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맥스·벡커도 영향 받을듯

프렌차이즈보호법 4월 제정건의

특별조사위 라이언즈변호사 강력대책촉구

맥스밀크와 벡커즈 밀크 등 프렌차이즈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제프·라이온즈 변호사는 4월중 투자가들과 스몰비지니스맨들을 보호할 강력한 법규제정을 온타리오주정부에 건의하겠다고 14일 말했다.

소비자보호전문의 라이온즈변호사는 지난1월부터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고있는 맥스·밀크와 벡커즈·밀크 본사측과 프렌차이지(상점운영자측)와의계약 내용등 프렌차이즈에 관한 전반사항을 검토해 왔다.

라이온즈변호사의 발언은 지난주 밥·엘지 온타리오주 소비정장관이 프렌차이즈 전반에 관한「공개법안」을 입안중이라고 발언한데 이은것으로 엘지장관은 프렌차이즈 계약이 최종화정되기전 시험기간을두어 프렌차이지가 해약할수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법안을 구상중이라고 언급했었다.

3주전 소비성을맡은 엘지장관은 이같은 공개법안이 프렌차이즈 계약을 둘러싼 피해를 막을수 있으나 최선의 방책을 계약에 싸인하기전 조심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프·라이온즈 변호사는 "전국적인 프렌차이즈 등록제가 실시되어 회사의설립취지를 공개리에 밝히도록하고,정부는 대신 조사 담당자를 내세워 악용을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계약이 파기될경우 프렌차이즈 경영주가 보상을 받을수있는 유일한 길은 민사소송이나 사기혐의 고소밖에없고,현재로는 소비자보호법에의한 보호도 못받게 돼있어 교민들 중에서도 프렌차이즈 본사가 파산하자 투자한 돈을 몽땅 날릴경우가 종종있었다.

최근 글로벌·프렌차이즈 마켓팅 회사가 캐나다 세번째의 즉석음식(Fast Food)프렌차이즈회사라고 선전했다.

81년도에 캐나다에 338개소, 미국에 1,093개소의 식당을차린 17개 연쇄점 소유회사로 레스토랑및 연쇄회사연감에 등록했으나 실제 식당수는 몇개 없었음이 조사에서 드러났었다.

신문광고를 믿고 글로벌회사및 버거월드와 계약을 체결했다 $33,000이상 을 잃은 토론토의 바부·파렐씨는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중에 있다.

캐나다 전체의 프렌차이즈산업규모는 약 3백억 달러이다

온타리오주 신민당의 밥·뢰와 자유당의 데이빗·피터슨등 두 야당 당수도 프렌차이즈 보호법안 마련에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맥스 프렌차이즈경영자 협회의 홍중표회장은 비록 보수당정부가 프렌차이즈 보호법규를 마련한다 결정하더라도 새로운 법규제정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또 전반적인 프렌차이즈 보호규제책과 벡커나 맥스밀크 프렌차이지 들이 당면한 본사측과의 문제는 또 성격이 약간 다르므로 성급한 기대는 못한다고16일 말했다

김병진 벡커 경영인협회장은 "그동안 약3년간 벡커경영인들이 힘을 모아본사측과 실력대결을 해왔으나 큰 실효는 없이 시간만 끌어왔었다 정부는 조속히 상점 경영인들의 실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맥스와 벡커즈는 본사와 계약갱신시의 권리금,렌트 주종품목의 이윤폭,영업시간, 로열티책정,담보규 이자율등 많은 문제에서 서로 대결을 하고 있으나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한채 협회측은 정부가 정치적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주도록 건의하는 반면 본사는 본사대로 압력을 행사, 이와 대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ear respected reporter!

My name is James Choi

I am here today requesting this press interview to provide the clear truth about the so-called "conspiracy to assassinate South Korean president Chun Doo Hwan" case, after unexpectedly hearing the news that a warrant was issued by the Canadian police force to arrest me.

If there was a conspiracy to assassinate Chun Doo Hwan I presume that it could have internal struggle as in the late Park Chung Hee case, or that it could have been a product between Charles Yanover and certain high rank officials of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news, the Canadian police force is relating this case with many of those living abroad and searching their houses indiscriminately including my father and the publisher of 'New Korea Times', Mr. Chun Chung Kim.

My stay abroad is coming to an end.

I have my parents & family in Canada and as soon as this plot is cleared, I will be home.

Hoping for your assistance and thanking you in advance, I remain

Yours sincerely,

James Choi

◇최중화 이름으로 일부신문에 우송된 편지 내용.

최중화 편지 한·카당국비난

"일부 교민 수색당했다"

전대통령살해음모혐의로 캐나다 수사기관에 의해수배중인 최홍희씨의 아들최중화는 15일 편지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한국정부를 비난했다

15일 본사가 입수한 제임스·최 서명의 영어필기체로 된 편지는 모두 5장으로 겉봉에 베를린소인이 찍혔을뿐 발신주소가 없었다 편지에서 최중화는 자신이 현재는 공산국가에 있지는 않다고 진술했다.

편지의 필자가 정작 최중화의 것인지 혹은 그가 과연 발신지인 베를린에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중화씨

17일 오전 최홍희씨의자택으로 전화문의한 바로는 최중화의 큰 누님이라고 밝힌 여성이

신문에 누가 쓴 편지가 났느냐고 오히려 반문했고 가족들은 그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는 편지에서 "뉴스로 들은바로는 캐나다 경찰이 사건과 관련 아버지(최홍희씨)과「뉴코리아타임스」전충림씨를 비롯한 일부교민의 집을 무자비하게 수색했다" 고 말했으나 17일 전충림씨는 자택수색설을 일체 부인했다.

지난 1월초 토론토를 떠났다고 말한 최중화는 "자기는 태권도인으로서 일체의 폭력을 싫어하며 이번 사건은 한국정부내 암투혹은 야노버일당과 한국정부가 합작한 조작극이라면서 "사건이 해결되는 대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당분간 캐나다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암시했다.

최중화는 또 야노버에게 돈을 건네준적도 없고 80년 9월 태권도시범 방문외에 북한을 방문한적도 없다 "고 주장했다

가짜비자 발급드러나

주한미대사관, 1인당 5천5백불

주한미국대사관 소식통에 의하면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오면서 미대사관과 줄을 대고 있는 조직을 통해 가짜 비자를 입수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뉴스위크 3월22일자호는 Periscpoe(잠망경)난에서 이같은 사실은 6개월전 미대사관의 비자담당 영사가 5~6명 이민 신청자들에게 이중으로 비자가 발급된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수사결과 한국인들은 이같은 가짜비자를 얻는데 1인당 5천5백달러씩 지불했으며 이 가짜서류는 대사관근무 한국인 직원들에 의해 비자담당 미국관리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발급되었다고 이 잡지는 밝혔다.

뉴스위크는 이 사건으로 이미 2명의 미대사관근무 한국인직원이 파면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인 직원에 대한 파면과 이같은 가짜비자로 미국에 이민 온 한국인들에 대한 추방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최홍희씨 ITF 총재 사퇴"

미 태권사범 뉴톤씨 주장

(시카고지사)81년7월 최홍희 국제태권도연맹 총재와 태권도대회를 주최했던 미국인 태권사범 맥·뉴톤씨는 최홍희씨와 모든관계를 청산한다고 발표했다.

뉴톤씨는(태권도4단) 최씨와 태권도 관계로 20여년간 친분관계를 맺어왔으나,최근 최씨의 정치성향을 조사,관계를 끊는다는 편지를 최씨에게 이미 보냈으며 ITF최고책임자로서 정치에 관여하려면 그 직책에서 사퇴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었다.

주차벌금 올려 최고 600%까지

토론토지역서의 주차위반 벌금 미납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고 벌금납부시한을 단축하는 조례(법규)가 16일 메트로·토론토시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4월12일부터 이 규정이 시행되면 시청의 수입은 6백만달러가 증가한다.

주차위반자가 추가벌금을 안 받으려면 첫 위반딱지를 받은지 5일이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현재의 기한은 15일이다.

5달러짜리 벌금딱지는 5일이 지난 후에는 10달러, 30일 이후에는 30달러로 벌금이 증가한다 대체로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600%로 늘어난다.

금지구역에서 임시 정차한 차량이 받던 20달러 벌금딱지는 30달러 및 40달러로 증가한다.

중앙청을 박물관으로

국무회의, 85년초까지 개조

(서울16일－연합)정부는 서울 세종로에 있는 중앙청 건물을 오는 85년초까지 국립박물관으로 개조한다.

김용휴 총무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이같은 의결이 있은 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통치의 잔재를 씻고 또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한국문화의 실상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청 건물은 1916년에 조선총독부 건물로 건립되어 일인들의 식민통치 본부로 사용돼 오다가 45년 해방으로 미군정청이 잠시 들어선 후 이해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중앙청이 되었다.

한전 부사장에 박세직씨 임명

(서울16일－연합)한국 동력자원부 자문위원인 박세직 전수도경비사령관이 15일자로 한국전력 부사장에 임명되었다.

IMF·IBRD 서울서 총회

(서울16일－연합)제40차 IMF및 IBRD 총회가 85년 서울에서 열린다.

재무부는 16일 IMF와 IBRD의 144 회원국들은 지난 3월10일 40차 총회문제를 투표한 결과 85%가 이에 찬성, 서울개최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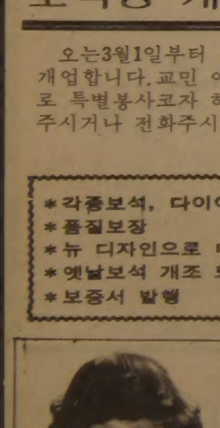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 은, 증권, Bonds, 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 상 욱
증권투자의 핵심은 시기의 선택으로 싸이클의 Bottom(최저수준)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는 요사이처럼 증권값이 하락할때 잡을 수 있는 것이지 값이 연일 폭등하여 일반대중이 서로 사겠다고 모여 들때는 결코 잡을수 없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금·은 취급
*품질보장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Booth No. 10—No. 11
215 Yonge St.
(영 × 퀸)

제일여행사
사무실이전공고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사무실을 하기주소로 확장이전하옵고 그간 교포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다나은 봉사를 위해 신용목 선생과 함께 일하게 되었사오니 배전에 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고 아래와 같이 자축기념 파티를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2년3월20일(토)오후2～6시
주소 : 649A BLOOR ST.W.(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전화번호는 전과 동일합니다
유지원·신용목 배

공고
제 3 회
동부장로교회컵 볼링대회
일시 : 1982년 3 월27일(토) 12시
장소 : Play-time bowlerama
(33 Samor Dr.)☎787－7421
경기종목 : 남녀개인전및 단체전(개인전을 토대로 핸디 적용함)
참가비 : 개인전 5불
단체전15불
시상 ○남자개인전 A조 1, 2, 3등
B조 1, 2, 3등
○여자개인전 1, 2, 3등
(볼링협회제공)
○단체전 1, 2, 3등
○터키상 남자2명 여자1명
○하이·싱글상 1명
○장려상, 2명
연락 : Mr. 리 ☎ : 633－7797
Mr. 조 ☎ : 226－2709
※쌀6포(25Lb)경품추첨있음
서부한국식품(3포)
제일식품(3포)제공
주최 : 토론토 동부한인장로 교회 청년회
후원 : 재 캐나다 볼링 협회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Library
Rm 036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문익주독주회 성황

저력과시한 성실한 연주

69년 이민후 캐나다의 피아니스트로 활동해온 위니펙의 교포 문익주(26)씨는 성실한 연주가로서의 만만찮은 저력을 토론토의 음악인들에 과시했다

14일 오후2시 세인트·로렌스·홀에서 베토벤의 소나타 D minor OP. 31 No.2 〈The Tempest〉로 시작된 문씨의 피아노 독주는 난곡중의 하나로 꼽히는 브람스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에 이르러 연주자의 역량을 아낌없이 내보였다

〈그의 손가락놀림은 사람의 손같지 않다〉는 한 피아노전공 학생은 독주회후에 있은 리셉션에서 열심히 피아니스트 문씨의 사인을 받기도 했다

이날 문씨가 택한 연주곡들은 1부의 베토벤 브람스외에 쇼팽의 스켈조 4번 E장조 OP. 54 2부의 차이코프스키의 주제와 변주 F장조 OP. 19 No. 6와 프로코피에프의 소나타 No. 7 B flat major, OP. 83이다

교민 30여명을 합친 4백여 청중들은 한곡한곡 연주가 끝날때마다 박수를 계속 문씨는 매번 2번 이상 무대인사를 해야했고 마지막곡이 끝났을 때는 4번이나 재등장했다

현재 뉴욕에서 줄리아드 음악학교의 사샤·고로드니쯔키교수밑에서 수학중인 문씨는 어머니 김경순 여사로 부터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현재 원광대교수로 있는 유영수씨에게서 테크닉은 거의익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문씨의 아버지 문흥규씨(마니토바대 교수·사회학)가 전했다

음악회가 끝난 후 로비에서 있은 리셉션에서 싸인에 분주한 문씨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며 곡이 표현하고자 하는것을 재현시키는 연주가로 한평생을 지내기로 결심을 굳힌 것은 불과 4년전의 일로서 인디애나대학 시절에는 의사를 지망했었다고말했다

하루 4~6시간씩 연습하며 아직 연주가로서 보다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정진하고 있다는 문씨는 피아니스트로서의 목표라면 연주생활과 교수직을 겸한 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이날 연주에 만족하느냐는질문에 연주에 만족한다는게 있을 수 있냐고 답변했다

이번 독주회를 주선한 토론토·아츠·프로덕션의 뮤직·디렉터 제인·포니 씨는 연주가 끝난 뒤 "문익주씨를 처음 알게 된것은 수년전 오타와에서 CBC 방송에서 일할 때부터 이다 그는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이다"라고 말했다

1980년 몬트리얼 국제경연대회에서 캐나다인으로 서 유일하게 입상했던 문씨는 수개의 국제음악대회 입상을 비롯 미국과 캐나다의 오케스트라들과 수차례 협연한 캐나다음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피아니스트이다

◇독주회후 리셉션에서 싸인에 바쁜 문익주씨.(왼쪽)

교민동정

◆이태준 캐나다한국문협 총무)=지난 13일 저녁 마순베이대에서 열린 문협월례회에서 「중국민산과 시작」 주제로 약 40분간의 구방을 했다 게나천의 시 「3국지」 「수호지」등에 나오는 작중시도 인용 중국 근대사와 상관관계에 놓여있는 시문학 소개로 관심을 모았다

자녀가진 직업여성 만족도높아

여성들 가계부담 증가

여성직업인의 의식조사결과 결혼과 자녀는 그들이 직업에 전념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실제로 직업여성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생활에 책임감이 많아질수록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 더 커진다고 한다

독신이나 결혼했거나 자녀의 유무에 관계 없이 이들은 자기의 일을 열중한다 일의 열중도는 나이와도 관계없다

이번 조사에 응답자중75%는 그들의 급료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87%는그들의 일이 "도전적이고 재미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직 51%만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이들의 생각보다 훨씬 적다 위의 51%는 그들의높은 자신감과 예상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전문가는 분석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연평균수입＄24,200의 프로페쇼날·매니저급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여성들로서 일반여성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독신(미혼)이나자녀가 없는 결혼여성보다자녀를 가진 여성이 직업에 대한 만족과 승진기회가높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분교 사회학부교수 마시아·밀맨은 자녀를 가진 결혼여성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 자기위주의 경향이 적어(따라서 비관적 경향도 적어짐) 자기의 직업을 탈출구로 생각하기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밀맨교수는 가정에 얽매이지 않은 여성들은 대신 자기의 일에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기

자기의 일에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실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오직 응답자의 12%만급료를 적게 받고 승진의 기회가 적어지더라도 일하는 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말해 여성의 어깨에 가계부담이 계속 가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이런일 저런일

주부, 파업 한달만에 가사분담 합의

◇캘리포니아의 한 주부는 1개월간의 주부역할거부파업끝에 전가족과 집안일을 분담키로하는 성공과업을 끝냈고 집안에는 전보다 더큰 웃음소리가 들리게됐다.

10대자녀 셋을가진 메어리·엘렌·쉐이버(40)여사는 한달전 장보기를 끝내고집으로 돌아왔을때 딸들이내놓은 수북한 빨래거리를보고 현관에다 내동댕이치며 "파업중"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엄마의 갑작스런 파업에 자녀들은 처음에는 화를내면서 땅콩버터 샌드위치등 간이음식이나 해먹다가 시간이 흐르자 엄마와 함께 앉아 심각히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했고, 집안일을전가족이 나눠서 담당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남편 존·쉐이버는• "지난 18년간의 결혼생활동안 늘 아이들이 우선이되고부모는 뒷전이었지만 이젠그 반대가 될 것"이라고논평.

칼·샌드버그 부통령 될뻔

가장 미국적인 시인의하나로 알려진 시인·칼·샌드버그가 한때 미국대통령후보자가 될뻔 했었다.

샌드버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의 편집인으로 일한 알버트·지루씨는 1948년당시 진보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한 헨리·월리스가 샌드버그에게 부통령후보로 나서줄것을 요청했으나 샌드버그는"나는 작가이지 결코 정치가는 안될것"이라고 한마디로 거절했었다고 지난주 회고했다.

출산을 6월로앞둔 황태자비 다이애나는 외국여행중 아기를 떼어놓고다니던 역대 황태자비의 전례를깨고 내년 예정된 캐나다등 영연방국 순방을아기와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

영국의 한 신문은 14일 자기주장이강한 다이애나양이 수백년 왕실전통에정면 도전함으로써 이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것 같다고 보도했다.

다이애나양은 아기와 엄마가 떨어져 있음으로써석을 정서적 불안을 염려한듯.

커피 기형아출산에관계없어 보스턴대학 FDA보고또번복

임신여성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과 기형아 출산에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다.

보스턴 대학 연구팀은 11일 「의학협회저널」에서 광범위한 연구 조사에서 임신여성의 카페인 사용과 기형아 출산에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 연방의약청은 1년반전에 임신여성이 커피를 많이 마실경우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世界의 자동차 메이커序列

역시 1位는 GM

도요다가 2位·크라이슬러·AMC는 10位밖에

〈동경 〉세계의 자동차 메이커서열이 크게 바뀌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제네랄모터즈(GM)는 세계랭킹1위를 계속 유지했다.

일본최대의 자동차회사인 도요다가 9일발표한것에 따르면 세계최대의 자동차 메이커는 GM으로 작년에 4백62만8천대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GM의 작년 생산고는 재작년보다 2.6%가 떨어진것이다.

세계 랭킹2위는 도요다가 차지했는데 작년 생산고는 3백22만 4백대로 재작년보다는 2.2%가 감소되었다.

3위는 역시 일본의 니싼(2백58만4천대)이 차지했고 4위는 미국의 포드(1백93만7천대), 5위는 서독의 폭스바겐(1백54만5천대), 6위는 프랑스의 르노(1백52만6천대), 7위는 역시 프랑스의 퓨조(1백48만4천대), 8위는 이탈리아의 피아트(1백22만9천대), 9위는 일본의 토요코교(1백17만6천대), 10위는 역시 일본의 미쓰비시(1백9만5천대)로 밝혀졌다.

미국의 크라이슬러와 아메리칸, 모터즈는 세계랭킹 10위에 들지 못했다.

속임수는 안써

남자 고교생96%, 섹스위한 방법

미국의 남자 고교생중 96%는 성교를 갖기 위해 속임수로 상대방의 눈길을 끄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62%는 상대방 여자의 피임을 아무런 준비없이 운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11일 개막된 미성교육상담치료가협회의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이같은 사실은 뉴져지에 있는 몬크레어 주립대학의 린·스미크로박사가 1백명의 남자 중류고교생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의 일부분.

이 조사서는 또한 대부분의 남자 고교생들이 미혼부가 됐을 경우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동의했으나 재정적 부양책임에 대해서는 39%만이 찬성한다고 말했다.

스미크로박사는 해마다 1백여만명의 미혼모가 생겨나는 현싯점에서 이번 조사서는 특히 10대 청소년에 대한 피임및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계몽의 절실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염가 방탄복 시판

군경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방탄복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등장했다.

비, 바람을 막을 뿐만아니라 총알, 칼,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재켓은 3백달러 정도한다.

경찰관 군용을 위해 지난 수년간 방탄복을 제조한 실버샤츠씨는 최근 10가지 모양의 가벼운 재켓과 방탄조끼를 최초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제조했다.

실버샤츠씨는 이 재켓과 조끼가 뚫리거나 이것을 입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5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포함하여 판매하는데 가격은 2백40달러에서 3백달러라고 밝혔다.

LE SALON

HAIR DESIGNER BY PAT

CUT & STYLING	$30
STYLING	$16~20
COLOUR	$20~50
PERM, CUT & STYLING	$65~80
PROTEIN TREATMENT	$7~15
HENNA	$27~35

SKIN CARE SPECIALIST BY LOUISE

FACIAL	$35~40
EYELASH TINT	$12
EYE BROW ARCH	$7
MANICURE	$8
PEDICURE	$15
LEG WAX	$25~40
BIKINI OR UNDER ARMS	$12
FACE WAX	$18

화장품 판매
MADE IN FRANCE YANKA

※시간예약을 하실때는 리셉숀에 하여 주십시요.

PAT(YONG-SOOK)P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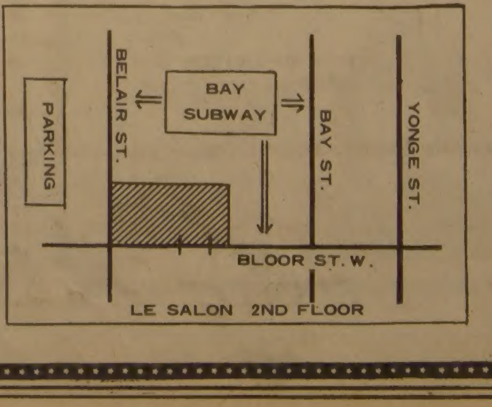
82 BLOOR ST. W. (2층)
☎: 964-2715

경 력

1945년11월22일 인천출생
1964년 서울여자예림 미용기술학교 졸업
1970년 서울명동 라메르 미용실근무
1972년 토론토 MICHAEL KLUTHE BEAUTY SALON 근무
1976년 토론토 GUS CARUSO'S SELF-EMPLOYER
1982년 토론토 LE SALON SELF EMPLOYER

APPOINTMENT HOUR

TUE	9:30~5:30
WED	9:30~5:30
TRU.	9:30~6:30
FRI.	9:30~4:00
SAT.	9:00~3:00



4월24일「미의축제」앞두고 살펴본다

역대미인대회 프로필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약사═

MISS KOREA

아리따운 용모와 육체미, 요염한 매력에 고상한 지성미·우아한 교양미등이 종합된 미녀를 뽑는 제7회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한달뒤로 다가옴에따라 관심과 화제의 열기가 서서히 더해지기 시작했다.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미녀들의 출전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6회에 걸친 지난「미의제전」들을 더듬어보는것도 뜻이있는 일일것이다.

■제1회 미인대회

—73년4월7일
사회 : 이창환·조성준

73년4월7일 이창환(성우)·조성준(영어사회)씨 사회로 장장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1천여명 참관하에 9명이 출전.

제1부는 토론토 코리언·콰이어의 합창, 오리엔탈·쥬얼스(당시 오리엔탈·팔레스 출연 직업보컬단)의 갑숭, 팽재유씨의 테너독창, 성우3인조(장철호·정연옥·이창환)의 입체낭독(박종화작 〈다정불심〉중 노국공주의 임종장면)으로 장식됐다.

제2부 미인선발에 들어가 한복차림의 후보가 1명씩무대에 등장, 관중에게 큰절을 하고, 한글과 영어로 이름·나이등 자기소개를 한 후, 여행·사랑·희망·자랑·생애등을 주제로 즉석스피치를했다. 이어 수영복, 야회복 차림의 몸매자랑이 있었다.

대개 10~11학년 고교생인 출전자들은 국어도 영어도서툴어 전원 스피치에서 고역을 치렀다. 특히 "마"로뽑힌 신종림양은 흥분탓으로외워둔 영어스피치가 생각나지않아 진땀 뺐고 "선"의박명희양은 퀘벡출신답게 불어로 스피치를 시작했다가 곧 영어로 바꾸는 실수(?)를 연출, "인기상"의 전인성양은 국어가 아주 서툴어 "나 달을 쉬어야겠어요"하며 끝내 영어로만 하고 말았다. 12년전에 캐나다에 왔다는전양은 처음 큰절하는 모양이 하도 우스워 폭소를 자아내더니, "인기상"을 타자, "나 말때문에 이것 탄 거야"해서 또한번 웃겼다.

"진"으로 뽑힌 박승애양은 하늘색 치마저고리로 등장, 국어와 영어스피치가 모두 간결·유창했으며, 매너도 세련됐다고 심사위원단이 평했다.

문학을 좋아한다는 박양이 "진"으로 뽑히자, 사회자가 박양의 자작시를 낭송하기도했다. 캐라반위원장 박인순씨의 장녀인 박양의 미용법은 "먹는것에 조심하고, 가끔수영·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전부라고.

박승애양은 이어 5월10일에 있은 본국대회에서 8위(향토상)에 입상했다. 이대회 출전자들은 대부분 대회임원들의 딸들이었다. 출전지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을 썼던 것이다.

◇제1회 입상자 선발미인
진 : 박승애(18, 11년생)
선 : 박명희(18, 퀘벡 10년생)
미 : 신종림(18, 11학년생)
인기상 : 전인성(18, 몬트리얼)
심사위원 : 진·매독서, 구상회씨등 7명.

◇ 오리엔탈팔레스의 무희들(제4회때) 엉덩이가 나와서 후라이보이의 익살을 낳았다.

■제2회 미인대회

—74년5월4일
사회 : 김항섭·전인성

74년5월4일 김항섭(전아나운서)·전인성(학생)씨사회로 열렸고 약 9백명 참관한 가운데 7명이 출전, 연합교회어린이합창단의 합창·송경란씨의 소프라노독창·팽재유씨의 테너독창·김은숙양의 가야금독주·박정혜양의 칼춤 부채춤·리나김양의 유행가등의 찬조출연을 곁들여 미의 제전이 펼쳐졌다.

"진"으로 지명된 이희영양은 "쇼크를 받아 무언지 모르겠다"고 어리벙벙해했다.

◇제2회 입상자
진 : 이희영(18, 캘가리 11학년생)
선 : 변순영(18)
미 : 전순경(20)
인기상 : 임경숙(21)
심사위원 : 구상회·전택균·이일우·최선화·노금자·폴 맥나마라

■제3회 미인대회

—75년4월27일
사회 : 이광민

75년4월27일 하오8시부터 3시간동안 이광민씨 사회로 열렸다. 약5백명이 참관했고 9명이 출전, 특별출연 정희숙·강대영씨의 노래를 곁들여 얼굴과 몸매자랑을 벌였다.

진으로 뽑힌 차명순양(에토비코크)은 "예쁜 아가씨들이 많아, 정말 기대도 안했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의 미인들은 아름다웁이나 매너등이 2회때보다 평균적으로낮다"고 평했다. 토론토 이외 출신은 한명도 입상 못했다.

◇제3회 입상자
진 : 차명순(19, 12년생)
선 : 이호영(16, 토론토)
미 : 김영옥(18, 토론토)
인기상 : 서혜경(21)
심사위원 : 박인순·강신봉·김선규·오호현·유희자·정태훈

■제4회 미인대회

—76년3월2일
사회 : 곽규석

76년3월2일, 후라이보이곽규석씨의 무보수 사회로 1천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7명의 미녀출전으로열렸다.

찬조출연으로 오리엔탈·팔레스(코포나이트 클럽) 무용단과 보컬팀이 등장했다. 무용단 아가씨들이 궁둥이와 아랫배에 크게 구멍을 뚫어 노출한 무용복차림으로 고고춤을 추고나자, 후라이보이는 "관중 여러분, 이 아가씨들이 무용복을 짓다가 천이모자라서 그만 구멍 뚫린 무용복으로 등장한점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죠크.

이 미인대회 심사위원진은 한때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대회장의 처제, 감독의 부인, 서울왕복 비행기표 제공자의 부인등이 심사위원으로 낀 점은, 그들이 비록 심사위원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제4회입상자
진 : 김계숙(18, 뱅쿠버 12년생)
선 : 김진숙(18, 13년생)
미 : 박옥진(21, 학생)
인기상 : 조윤경(21, 간호원)
심사위원 : 이축길·전택균·구상회·유희자·박용숙·김선근·오호현

77년과 78년은 미인선발이 실시되지 않았다.

◇ 한복으로 단정히 차려입고 선보이는 미녀들

◇ 모국 미인대회에서 향토미녀상(8등)을 받은 제1회때의 〈진〉 박승애 양

■제5회 미인대회

—79년4월29일
사회 : 최무룡

79년4월29일, 토론토중앙광고(배서스트×하버드)에서 배우 최무룡씨 사회, 가수 리타김 찬조출연으로 하오8시35분부터 자정까지 3시간반에 걸쳐 미의 축전이 벌어졌다. 반주는 최씨가 뉴욕서 데려온 4인조악단.

이날 출전미녀는 10명—메트로토론토외에서도 유니온빌, 몬트리얼, 해밀턴, 에드몬톤등지에서 5명이참가했다.

몬트리얼에서 원정온 자매후보중 언니 박혜라양이 영예의 "진"에, "선"에는 등록1호 박숙희양, "미"에는 조미상양이 정상진출이루고, 뛰어난 피아노 연주와 재치있는 대화로 주목을 끈 김애기양은 "매너상"과 "특기상"의 2관왕이 됐다. 김양은 76년 제4회 대회에서 "선"에 입선된 관록의 소유자.

최연소자로 애티와 당돌한 답변에 애교를 곁들여 박수를 많이 받은 박선주양은 예상대로 "인기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의 특색은 형제출전, 2회 연속출전, 연속입상, 학생후보가 대부분인 점이다.

◇제5회 입상자
진 : 박혜라(20·모델)
선 : 박숙희(21·학생)
미 : 조미상(22·학생)
특기 : 김애기(21·학생)
매너 : 김애기(　　)
인기 : 박선주(17·학생)

제2회 미인대회 〈진〉이희영 양

■제6회 미인대회

—80년4월27일
사회 : 백용빈

80년4월27일, 전년과 같은 센트럴·테크니칼·칼레지에이트에서 입추의 여지없이 70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토론토의 명물(?) 사회자 백용빈씨 사회, 시원한 가수 "대머리 총각" 힛트송의 김상희양의 특별출연으로 제6회 미인대회의 막이 올랐다.

8명의 후보가 출전, 이번 역시 태반이 학생.

최연소자 고교10년의 허윤정양이 언니(?)들을 물리치고 영예의 최고상"진"을 따낸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허양은1~6회중 최연소 "진"이다.

허양은 서울서 열린 전국대회에서「포토제닉」상을 받았다

8명중 유일한 직업인 손주라양(보석상근무)은 전년도(5회) 대회때 아슬아슬하게 고배를 마셨으나 6회에도 출마! 당당히 "선"을 따내는 투지의 승리를 과시했으며, 제4회(76년)에 출마, 서운했던 장지옥양은 이번에 재도전했으나 불운에 그쳤다.

전년(79년도)에 몬트리얼의 박혜라·박혜련자매가 나란히 출마, 언니 혜라양이 정상여왕 "진"으로 뽑혔었는데, 이번6회에도 고민정·고보경 친자매가 공동도전, 아우 보경양이"인기"상을 차지했다.

한편 제4회(76년), 제5회(79년)두번나와"선", "특기" "인기상"을 탄 김진숙(일명 애기)양의아우 김진명양이 제6회(80년도)에나와 "미"로 당선되는"자매는용감했다"의 일화를 남겼다.

◇제6회 입상자
진 : 허윤정(17·학생)
선 : 손주라(22·회사원)
미 : 김진명(20·학생)
매너 : 안주영(17·학생)
인기 : 고보경(18·학생)

제3회 톱미녀 차명순 양

제4회 최고영예의 김계숙 양

◇제6회 최연소〈진〉허윤정 양

◇제5회 정상 박혜라양

■제7회 미인대회 전망

—82년4월24일
사회 : 곽규석·피세영

과거 대회들이 흔히 학교강당을 이용한데 반해, 이번에는 호텔(토론토시청뒤 Holiday Inn)에서 디너댄스파티를 겸한 다양한절차를 곁들여 열린다.

사회겸 원맨쇼에는 후라이보이 곽규석씨가 익살과 재치를 보여줄 것이며, 모국시절 만능연예인으로 칭송받은 연극배우, 성우, 디스크자키 출신의 토론토교포 피세영씨가"금상첨화"로 쌍벽을 이루어 흥미진진하게 대회를 끌어갈 것이다.

한편 인기가수 이숙·서유미양과 6인조악단 코리안·키튼스도 봄밤의 열기를 북돋아줄 것이다.

주최측인 캐라반 위원회는 만반준비를 다 갖추어 가고 있으며, 포스터 작성, 입장권도 판매중에 있다. (디너포함 $30)

남은것은 정작 그밤의주인공인 미녀들의 출전이다.

토론토한인회는 전국각지의 한인회에 미녀추천의 회공문을 띄워, 타지역(서부·북부등 전국일원) 미녀들의 다수 참가를 부탁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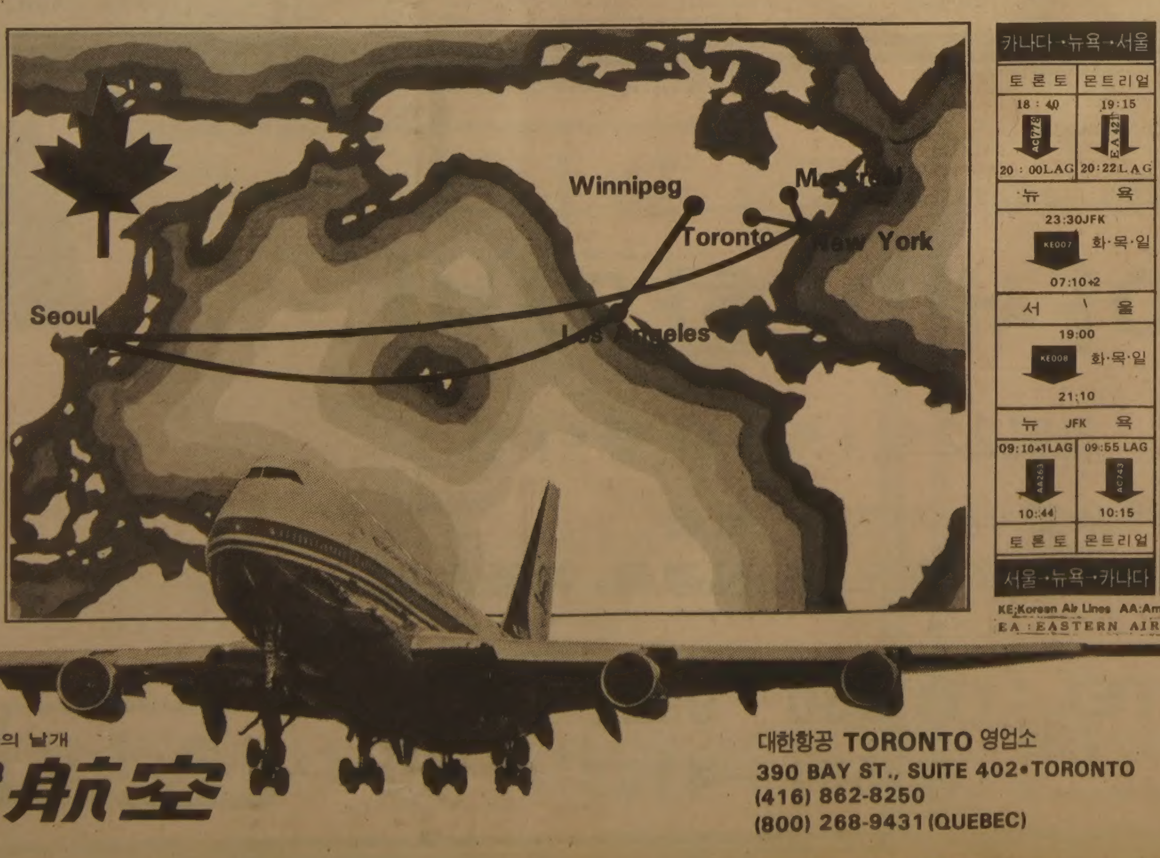
제7회 82년도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신청서는〈토론토 한국일보〉전면광고에 매번 실리고있으니 그 양식대로 적어서 토론토한인회(20 Mobil e Dr. Tor. M4A 1H9 Tel : (1)-(416)-755-9288)나 본사(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Tel : (1)-(416)-533-2361)로 신청하면 된다.

★역대 미의여왕(진)의 진단서★

회수	연도	이 름	나이	거주지	직 업	키	무 게	몸 치 수	특 기	취 미	희 망
1	73	박승희	18	토론토	학생11년	165		34·24·34	피아노·춤	문 학	약 사
2	74	이희영	18	캘가리	학생11년	165	118	35·24·35			
3	75	차명순	19	토론토	학생12년	166	105	34·23·36	실내장식		현모양처
4	76	김계숙	18	뱅쿠버	학생12년	168	113	35·22·35	여행·요리		의 사
5	79	박혜라	20	몬트리얼	모 델	167	50kg	35·24·35	노래·춤		
6	80	허윤정	17	토론토	학생10년	166	52kg	35·23·36	수 영	피아노	

대한항공이 더욱 편리해졌읍니다

한국으로 가실때에는 뉴욕에서 매주 3회, L. A.에서 매주 10회 출발하는 대한항공의 점보기 편을 이용 하시면 아주 편리 합니다.
대한항공 007편은 뉴욕의 JFK공항을 화·목·일요일 밤 11시30분에 그리고 015와 005편은 로스앤젤리스에서 매일(월요일 제외) 밤에 한국으로 출발함으로 카나다 어느 도시에서 떠나셔도 당일로 연결됩니다.
뉴욕까지의 연결편이상 부득이 뉴욕의 LAGUARDIA 공항과 JFK공항간을 원하시는대로 헬리콥터 편을 이용 무료로 연결시켜 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 돌아오실 때에도 논스톱 특급편을 이용하실 수 있어 더욱 편리 합니다.
뉴욕편을 이용하실 경우엔 뉴욕에서의 호텔 1박을 무료제공, 다음날 아침 카나다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고 있읍니다.
언어의 불편없이 정성껏 모시는 대한항공편은 오시다 뉴욕이나 L. A.의 친지를 만나 보실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카나다→뉴욕→서울

구분	토론토	몬트리얼
출발	18:40	19:15
편명	AC778	EA421
도착	20:00 LAG	20:22 LAG
뉴욕 출발	23:30 JFK KE007 화·목·일	
서울 도착	07:10+2	

카나다→L. A.→서울

구분	위니펙	토론토
출발	16:20	17:50
편명	AC763	AC793
도착	17:41	19:50
로스앤젤리스 출발	22:40 KE015 화·수·금·토	20:50 KE005 목·일
서울 도착	07:20+2	07:30+2

서울→뉴욕→카나다

구분	토론토	몬트리얼
서울 출발	19:00 KE008 화·목·일	
뉴욕 도착	21:10	
뉴욕 출발	09:10+1 LAG	09:55 LAG
편명	AA263	AC743
도착	10:44	10:15

서울→L. A.→카나다

구분	위니펙	토론토	토론토
서울 출발	20:40 KE012 (KE006) 매일		
로스앤젤리스 도착	18:55		
로스앤젤리스 출발	07:45+1	00:32	08:15
편명	AC764	AA196 (CHI) AA160	AC790
도착	15:21	09:13	15:40

KE:Korean Air Lines AA:American Airlines AC:Air Canada
EA : EASTERN AIRLINES

정성껏 봉사하는 겨레의 날개
KAL 大韓航空

대한항공 TORONTO 영업소
390 BAY ST., SUITE 402•TORONTO
(416) 862-8250
(800) 268-9431 (QUEBEC)

지정여행사
한국여행사 531-4607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교포 상인들 단합으로 범죄격퇴

79가 11개점포 비상벨운영,1년간 한건도 피해없어

(시카고)

심각한 불황과 빈발하는 강력사건속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인상가 일각에서 상가별 비상벨 설치 및 친목회 구성등으로 상호안전을 도모해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상호안전대책을 강구해가고 있는 지역은 시카고 남부 79번가와 카티지 그로브의 교차지점. 이 지역일대에는 위그·타운등 11개 한인 점포가 있다.

이 지역은 남부의 전체 한인 상가 가운데 유일하게 교포점포를 잇는 비상벨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용되고 있는 곳이다.

▲ 교포상인끼리의 인화단결로써 완벽한 비상벨시스템을 운용, 무사고 지역 으로주목을 끌고있는남부79번가의 한인상가 밀집지대.

지난해 10월,장병수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이곳 교포상들이 스스로 경비를 들여 설치한 비상벨 시스템은 한쪽의 교포가게에 들어 온 고객이 조금이라도 수상한 거동을 보이면 이를 눌러 즉각 다른 교포 가게의 지원을 얻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체 안전시설.

이곳에서 가발가게 「위그·타운」을 경영하는 강숙희씨(49세)는 "비상벨 시스템이 없었다면 여자 혼자서 가게를 지킬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 들어서만 비상벨 덕을 다섯번씩이나 톡톡히 보았다"고 말했다.

이 비상벨 시스템은 가장 효율적인 범죄 예방대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부의 각 지역 한인상가는 서로의 미묘한 경쟁관계 때문에 대부분이 이를 실현하지 못해 왔다.

79가와 카티지 그로브의 한인상가들이 비상벨 시스템을 실현시킨 것은 이 지역 교포상들의 남다르게 두터운 인화 관계가 밑거름이 됐던 덕분이었다.

평소 일과가 끝나면 이곳의 교포상들은 함께 어울려 흑인 경영의 맥주집에 가서 술잔을 기울이며 하루의 피로를 풀기도하고,북쪽지역의 핏자집에도 들려 자주 친목을 도모해왔다.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가져,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이들 교포상은 비지네스상의 경쟁관계를 떠나,진심으로 서로의 안전을 걱정해 주게끔 됐다.

비상벨 소리가 나지 않아도 일과시간중에 틈이 나는대로 서로의 점포를 수시로 방문,대화도 갖고 안전도 확인해 준다.

그러나 이토록 오손도손한 79번가 한인상가도 지난 80년말까지는 어느 지역못지 않게 냉랭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 한인 상점 입구에 부착되어있는 비상벨모습.

그러던것이 80년 10월,태권도 사범인 김성수씨(6단)가 이곳의「마초·맨」옷가게에 취직 하면서부터 이 지역 교포상들은 서로의 친목을 다지게됐다.

김씨가 79번가에 처음 왔을때 이곳의 교포상인들은 길거리에서 서로 마주쳐도 싸늘하게 외면해 버릴정도로 관계가 서먹서먹했으며 심지어 한쪽 교포가게에서 사고가 나도 위로 인사조차도 주고 받는 법이 없었다.

김씨는 이웃 교포상이 곤경에 처했을때는 서슴없이 뛰어가 유단자의 실력을 이용 교포상을 도왔으며 자신의 활달한 성격을 십분 발휘하여 교포상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로의 친목만이 살길"이라고 누누히 강조했다.

김씨의 남다른 노력으로 79번가의 한인상가가 단합이 잘되기 시작한 80년말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는 단 1건의 범죄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이곳의 흑인 상점이 몇군데 강도를 당했으나 한인상가 11군데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단체 이름이 없지만 이곳 교포 상인들은 정식으로 자위대를 발족할 것도 구상중이다.

김성수씨는"흑인 강도들은 결코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고 사전 답사를 꼭 하는데, 이곳의 한인 상가끼리는 비상벨도 장치되어 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는 범행 대상에서 제외 하는것"이라고 분석하고 "불경기와 범죄를 이기는 방법은 교포 상인들끼리의 단합과 친목뿐"이라고 재삼 강조를 했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카나다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38)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옮김

헤좌우는 그의 큰 썰매에 사슴고기와 털을 잔뜩 선물로 싣고 북쪽에 있는 우리 동네로 한겨울에 도착하곤 했읍니다.

엘라이투""나는 언제나 손님을 크게 환영했고 사람들을 온 이글루로 보내서 환영잔치를 벌이기도 했어요.

잔치날 저녁에는 엘라이투""나의 큰 이글루에는사람들이 춤출자리가 없을정도로 몰려왔지요. 엘라이투""나는 헤좌우를 칭찬하는 노래를 부르며 언제나 먼저 춤을추기 시작했읍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헤좌우에게 값진 선물을주며 사람들은 그 선물이 훌륭하다고 모두 소리를 질렀지요. 그런다음에 헤좌우가 춤을추면서 그 선물이 얼마나 훌륭한가 노래로 답례를 하고, 노래가 끝나며 역시 그의 의형제를 위하여 선물을 했읍니다. 이렇게해서 밤이새고 두사람은 똑같이 자기가 갖고있는선물을 모두 내어놓아 선물들이 산처럼 쌓여가며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몰아넣었읍니다.

여인들은 바빴읍니다. 이글루 밖은 죽음처럼 깜깜했지만 눈속에서 계속 불을피워 김이 무럭무럭나는 사슴고기를 쉴새없이 떠들여왔지요. 손님들은 아직도 곤방 동네에서 계속 몰려와서 북치고 춤추는 축제는 옆에있는 다른집까지 옮겨가야 했읍니다. 엘라이투""나와 헤좌우는 이글루와 이글루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서로 새롭고 훌륭한 선물을 교환했어요. 아침이되자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고, 두사람은 각자 가지고있던 물건을모두 상대방에게 주게됩니다.

어떤때는 춤과노래가 이삼일동안 계속했고, 그잠깐잠깐 사이에 잠을자야 했는데 그때마다 헤좌우는나의모친과함께 잤는데 이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이었기때문이었지요. 북쪽으로 오밍묵을 사냥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려운 여행길에 가족을 동반하지않는것이 상례었기때문에 각자는 자기의 의형제의 부인과 함께자는것이 허락되었고, 방문자가 이러한 호의를 거절하면 이동네에큰 불명예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점은 명심해야됩니다. 어떤 방문자도 여자가 원하지 않으며 함께잠을 잘수가 없읍니다. 마지막 허락은 언제나 여자에게 달려있어지요. 봄이되면 엘라이투""나가 여름에 가야읍나고 리""할스로 여행을하며 거기에는 자기부인과 함께 지낼방이 있어지요. 그가 헤좌우의 땡""을 방문하게되며 자연스럽게 자기부인이 목욕장소가 있으므로 그의 의형제의 부인과함께 자게 마련이었읍니다.

엘라이투""나의 캠프에서 벌어지는 축제는 몇일동안 계속되었고, 그것이미처 끝나기전에 남쪽으로부터 또다른 한패의 사냥꾼이 도착하며 또다시 축제가 시작되곤 했답니다. 춤과 노래와 도박은 가엾되고 겨울이 거의 끝날때가 되어야 잔치가 끝나는때가 많았읍니다.

드디어 헤좌우와 엘라이투""나는 사냥하기로 작정하고 사람이 한번도 살지않았던 투레말리곽의 서쪽에있는 험한 땅으로 길을 떠나면서 식량은 조금만싣고 갔지요.

그들은 때때로 2주일 동안 바위산을 통과해서 딱딱하게 얼어붙은 눈위에서 사향소들이 이예를찾아 헤메던 발자국을 겨우 발견하곤 했답니다 발자국은 발견하면 거기에 여행용 이글루를 만들어 캠프를 쳐 놓은 다음에 두 마리의 개만 데리고 걸어서 앞으로 나갔읍니다.

이땅에서 겨울철 해는낮이 겨우 한두시간밖에 계속되지 않으므로 주로 밤사냥이 되었고 낮에 사향소에 접근하는것이 매우힘든 일이었읍니다 그래서사냥꾼들은 밤빛에 어두움이 부서질때를 틈타서 밤에행동했읍니다.

그리고 성이난 사향소의 숨쉬는소리만 어둠속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있어지요.

이때 활에서 시윗 상기는 소리가 갑자기 울리며 어둠속에서 전속력으로 달아갑니다.

화살에맞은 이 털이무성한 짐승은 고통을 참지못하고 공중으로 뛰어올라가지만 아직도 살아있는동안 숫사향소는 자기줄에서 남아있읍니다.

가운데있는 암놈들이 화살에맞기 시작하며 미련한 것들이 공포에질려 난폭하게 발작을해서 원이 깨지고 말지요.

암놈들이 미친듯이 뒷발질을하면 숫놈들이 밀려나서 그렇게 단단하던 오밍묵의 방어진이 깨어집니다 이때는 숫놈들도 공포에질려 그 허둥대는 새때 주으로 뛰어들어 갑니다 사향소는 이때까지도 뭉쳐붙어있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은 더욱 어렵게만 듭지요.

사냥꾼들은 바위 틈에서 뛰어나와 여우처럼 재빠리 움직여서 이번에는 환대신 짧은창을 사용해서 사향소를 마구찔러 댑니다 그러나 상처입은 소들이 마구 넘비들기 때문에 경충경충뛰어 다니고 모방가는 방법으로 내려밟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후에 모든것이 끝나지요 개들은다시 풀어놓으며 이 두사람이 사향소의 고기를 다 처리 할때까지 참을수 없다는듯이 잠자코 기다리고있지요. 그다음에 개들에게고기를 나누어 준 다음 고기를 썰어놓고 오밍묵의 귀중한뿔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두꺼운 털을 잘 말아놓습니다

한번의 사냥감을 동네로 싣어오는데는 3~4주가 걸리고 사냥은 그때야 끝이납니다

사향소의 뿔로 숫가락국자등을 만들지만 그중에서도 부친이 살던당시에제일 훌륭한 석궁은 만들어 냈답니다

(계속)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아세아한약방
3월22일(월)확장이전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TEL:(B)530-0522
(R)531-4165
확장이전
----645
Bloor. St. W.
(신용조합옆)
조지섭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나프타·벙커C油값 앞으로 더 내리겠다"

"휘발유값 引下는 어려워"
政府、常委답변 短期性자금 겹利子 안받아"

金埈成부총리는 12일 국제原油價인하에 따른 국내油價조정문제에 대해 『備蓄上의 사정、換率인상의 差등으로 휘발유값을 인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앞으로 석유화학공업을 위해 나프타가격을 내리고 벙커C유가격도 좀더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金부총리는 이날 국회經科委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정부는 경제정책목표를 물가안정、국제수지방어、富의公正분배에두겠으며 앞으로 경제기획원의 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범위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 현재 중소기업을 大·中·小3등급으로 나누는 작업을하고있으며 멀지않아 그결론이 나올것』이라고 말했다.

財務委 羅雄培재무장관은 『앞으로 短期性자금에 대해서는 「겹이자」를 받지않을방침』이라고 밝혔다.

羅장관은 이날 『하룻돈을 빌려주고 이틀이자를 받는겹이자를 철회하라는 林采洪의원(無)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단자회사의 短期債에 대해서는 이미 30일이내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은행의경우도 이에준해서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와관련、『장기적으로 모든 대출에 대해서 겹이자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에따라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한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文公委 地方주재記者부활 言論團體長과협의

李光杓문공장관은 禁書해제와 관련、문공부에서 추천한 도서에관한한 재판과정에서 保安法위반사건의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지방駐在기자의 復活문제에 대해 『신문의 제작을 보다알차게하고 뉴스제작에 문제가있다면 언론단체의 대표와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順航국회에 外米突風… 괴로운 3黨총무

◇별다른 이슈도 없었던 順航국회는 느닷없이 突風으로 등장한 外米도입 收賄說로 3黨총무들은 몹시 괴롭다. 3黨총무들은 常委활동 마지막날인 12일 야당의 特調委구성안과 會期연장공세를 싸고 3~4차례 公·非公式절충을 벌였으나 뾰족한 합의점이 나오지않자 運營委의석에 앉아 妙策을 찾느라 골몰하고있다. 左로부터 李鍾贊 民正, 林鍾基 民韓, 李東鎭 국민당총무.

調査特委구성案 부결
運營委 民韓、本會議에 직접 제출키로

국회運營委는 12일하오 民韓、국민、議政同友會가 공동발의한 「外米도입에 따른 不正사실조사를 위한 特委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贊反토론을 거친뒤 표결에 붙여 찬성10(民韓·국민·議政)반대11표(民正)로 否決시켰다. 운영위는 또 民韓黨이 제출한 會期연장결의안도 否決시켰다.

이날 民韓黨의 劉溶根의원은 特調委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美의원 1백12명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청문회까지 열리고 있을뿐 아니라 美法院에 提訴까지 되어 국제적인 스캔들로 번지고 있는데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돼있는 國政조사권발동을 행사하지않는것은 국민에 대한 信義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부農政의 시행착오가 결국 국민들의 경제적손실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과오를 되풀이않기위해 이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날 李致浩의원등 民正黨의원들은 반대토론에서 『헌법에 규정된 조사권은 정부의 감사권및 수사권이아니며 각常委가 가지고있는 심사권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소관常委가 계속해서 맡는것이 타당하다』면서 『국내법상 刑事訴追중인 사건은 간섭치 못하게돼 있는데 美國법원에 제소중인 것을 다룬다는것은 語不成說이고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民韓黨의 睦堯相、朴寬用、金在暎의원등은 贊成토론에서 『1、2만원의 不正사례만 있어도 공무원을 해임하고 분수에 넘치는 혐의만으로도 물러나게하는 정직과 청렴에의 강인한 의지가 새시대정신인만큼 大型의 不正혐의에 국정조사권발동을 주저한다는것은 명백한 背任』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운영위에 앞서 民正 民韓 국민등 3黨총무들은 3~4차례 회담을갖고 막바지 국회에서 爭點이 되어온 外米도입 疑惑을 조사하기위해 民韓黨등 野黨측이 제출한 특별조사위원회구성 결의안과 民韓黨이 12일 제출한 제110회 임시국회 會期를 17일까지 4일간 연장하는 결의안의 처리、그리고 李漢基감사원장의 국회출석보고 문제등을 협의했으나 妥結을 보지못했다.

이날 일련의 총무회담에서 民正黨은 『韓美외교 관계등을 고려、特調委구성은 곤란하고 그대신 經科委의小委를 구성하자』고 代案을제시했으나 民韓黨측은 『國政調査를위한 特調委』를 고집하며 반대했다.

民正黨측은 會期연장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뒤 常委를열어 계속 다룰수는있으나 이번 會期연장은 불가능하다』고 特調委와 같이 강경한 반대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감사원장의 出席에 대해서는 民正黨측에서 11일의 法司 經科委에서는 出席결의안이 否決되었지만 각당의 대표및 3役과 法司 經科등관계常委의 위원장과 각黨간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 李漢基감사원장이 자진 출석하여 外米도입의혹의 조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다고 제의했다. 이에따라 李원장이 출석까지 했으나 法司 經科委소속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여 不參했다.

총무회담과는 별도로 李澈 民正黨대표위원은 쌀스캔들로빚어진 特調委구성 논란을 수습하기위해 柳致松民韓黨총재와 2차례 절충을가졌으나 별다른합의를 보지못했다.

한편 이날 經科委에서는 民正黨측이 外米도입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조사小委를 구성하자고 전격제의、통과시키려하자 民韓 국민등 野黨의원들이 退場하여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民韓黨은 12일하오7시 院內對策委를 열고 국회운영위에서 外米도입 의혹진상조사特委결의안이 否決된데 대한 對策으로 소속의원들의 서명을 얻어 特調委구성결의안을 13일 本會議에 직접 제출키로 했다.

運營委 民韓黨이 제출한 재해의연금轉用여부조사를 위한 特委구성결의안을 각각 부결시키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안정과成長에 관한 긴급명령폐지결의안」을 일부수정 통과시키는한편 국민당이 제출한 국회법개정안을 이미 구성돼있는 국회법 심사小委에 회부、民韓黨측 개정안과 병행 심사토록했다.

國會 오늘閉會

제110회 임시국회는 12일로써 각常委활동을 모두끝내고 13일 本會議를열어 議案을 처리한뒤 閉會한다.

이날 13개常委는 각기계류된 안건을 처리하고 일부상위는 정책질의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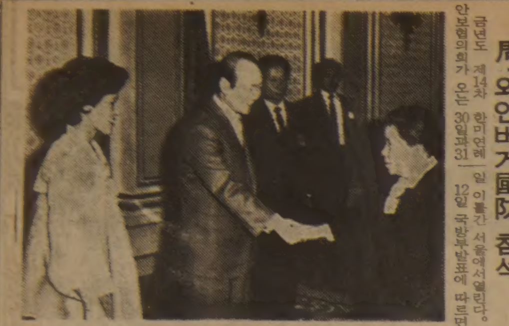
民韓黨은 13일상오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院內對策을 협의한다.

社會漫評

〃가슴에다가 「도둑」이란 명찰을…〃

韓美安保協 30·31일 서울서
聯合防衛능력 재점검

周·와인버거國防 참석



금년도 제1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12일 국방부발표에 따르면 이번 서울회의는 周永福국방부장관이 주최하며 미국측에서는 캐스퍼·W·와인버거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방부는 또 이회의에 앞서 한미양국은 오는 29일 尹誠敏합참의장과 데이비드·존즈美합참의장의 공동주재아래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략지침을 마련하기위한 군사위원회(제4차)를 서울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안보협의회의 의제와 양측대표단명단등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회의는 작년(13차)회의에서 토의된 제반문제를 재검토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를위한 한미연합방위능력을 확인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오는 28일께 내한할것으로 알려졌다.

退職교직자 百56명 全대통령、招請오찬

全斗煥 대통령은 12일 낮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지난2월 停年퇴직한 교직자 1백50명을 청와대로 초치、오찬을 베풀고 공로를 치하했다. (사진)

이자리에는 白樂夏(서울大교수) 朴守鉉(慶北 慶山고교교장) 具龍慈(여·서울上溪女中교사) 金正喆(忠南대남국교교장) 蔡俊錫씨(全北敎委학무국장)등 남자교직자 1백42명 여자교직자 8명이 참석했으며 李奎浩문교부장관이 배석했다.

韓美협력 더욱增進
外務委、修交百돌 決議案채택

국회外務委는 12일 韓美修交1백주년에 즈음하여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증진을 위해 한국국회가 美합중국에 보내는 5개項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外務委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한국 국회는 ▲主權회복과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위한 노력을 적극 성원·지지해준 美합중국정부와 국민에 대하여 심심한 謝意를 표한다 ▲한국動亂중 공산침략자를 과감히 응징하고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美將兵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에 위로와함께 神의 加護가 있기를 기원한다 ▲美합중국정부와 국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그리고 자유와 발전을 향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성원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적극 협력해줄것을 희망한다 ▲韓美양국정부및 국민간에 정치·경제·문화및 군사등을 비롯한 모든분야에서 互惠·平等을 바탕으로한 우호협력 증진관계를 위하여 상호노력할것을 다짐한다 ▲韓美修交1백주년에 즈음하여 양국 국민간의 돈독한 友誼를 기리는 뜻으로 한국국민의 이름으로 美의회에 「友情의 牌」를 보낸다는 등의 내용이다.

法官 76명異動

法院行政차장	崔在護
水原地法원장	高湞權
春川地法원장	黃善錚
大田地法원장	李炳厚
大邱地法원장	韓在永
釜山地法원장	金達植
濟州地法원장	金潤慶

대법원은 12일 법원행정처차장에 崔在護 大邱지법원장을、釜山지법원장에 金達植 大田지법원장을 임명하는등 지법원장급 7명을 포함한 76명의 법관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金潤慶서울고법부장이 濟州지법원장으로 승진했고 고법판사 5명이 지법부장으로、지법판사 9명이 고법판사로 각각승진되는등 모두 15명이 승진됐다.

또 李相文、柳彦씨등 변호사2명이 신규로 임용돼 大邱고법과 光州고법판사로 보직했으며 지법부장 10명、지법판사18명이 전보됐다.

이번인사는 공석중이던 대법원판사에 吳成煥 법원행정처장이 임명된데따른 후속인사였다.

北傀軍 지난年末에 百萬동원 特殊훈련
日政府、事態주시

【東京12日=聯】북괴가 지난해말 실시한 군사훈련은 2개월에 걸쳐 북한전역에서 1백만명이 동원된 사상최대규모의 특이한 훈련이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정부소식통을 인용、성질과 규모면에서 종전의 훈련과 전혀다른 작년말 훈련에 대해 북괴의 의도와 목적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있으며 日정부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信用保證 이사장 裵渡씨 辭表

裵渡信用保證基金이사장이 朴永復사건에 대한 도의적책임을 지고 12일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住宅은행장으로 내정된 柳悌佑大韓投資信託사장 후임엔 전 국회의원 朴命根씨가 내정된것으로알려졌다.

◇美下院 農務委員會 목화·쌀·설탕小委는 11일상오(韓國시간 12일상오) 韓國의 美國産쌀도입을둘러싼 스캔들에관한 청문회를열었다. 사진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빌·알렉산더의원(民·아칸소)과 존·브로의원(民·루이지애나)의 모습. 왼쪽이 알렉산더의원. 【워싱턴11일AP聯=聯】

賂物說 공식否認 美國務省성명
原·被告업자、攻防 美下院청문회

【워싱턴12日=曺淳煥특파원】美하원의 존·브로(民·루이지애나州)와 빌·알렉산더(民·아칸소州)등 쌀생산지 출신 의원들은 11일상오10시(한국시간 12일0시)에 열린 美하원 농무위원회 목화·쌀·설탕小委에서 『한국이 81년도 50만톤의 캘리포니아産 쌀을 수입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치않아 미국쌀 생산업자에게 큰타격을 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알렉산더 의원은 『한국과 미국사이의 쌀거래에서 6백만달러 뇌물이 오갔다는보도가 한국신문에도 실렸다』고 밝히고 韓美간 쌀무역정상화를 위해서 이뇌물수수설이 철저히 규명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보웬(民·미시시피州)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청문회의 분위기는 발언의원이 쌀생산지 출신의원이기때문인지 의원들의 발언은 한국을 위협하는인상을 주었으며 청문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한국정부에대한 일방적인 비난으로 시종 일관했다.

증인으로 나선 前샌프란시스코시장 조셉·알리오토변호사(캘리포니아州경작자협회의 소송대리인)는 駐美한국대사가 자신과 쌀수입건에 관해 협의할때 터무니없는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하기도했다.

한편 이와때를 같이하여 美의회는 韓美간쌀거래에 6백만달러의 뇌물이 오갔다는 보도의 眞僞를 가리기 위해 11일본격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11日=聯】미국정부는 11일 한국의 미국산쌀도입과정에서 미국곡물상들이 한국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단호히 부인했다.

미국무성의 켄·베일즈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무성이 수개월전부터 이같은 주장을 알고있었으며 이같은 주장에 관해 한국정부와도 논의를 해왔다』고 밝히고 『우리는 이같은주장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알고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地平線

곡물시장을 주름잡는 세계5대곡물재벌중의 하나가 드레피스社다. 20세기초부터 이회사는 선박업에 눈을 돌렸다. 그때까지만해도 석탄으로 털털거리며 움직이던 낡은 배들을 제치고 디젤선박을 들여 마련했다. 양곡장사에 수송기능을 강화한것이다. 얼마 지나 이 선박업이 오히려 짭짤하게 돈을 더 벌어들였다. 이회사 소유주는 그때 확신했다. 곡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나 선박은 영원한 재산이라고…. ▼통상은 國旗를 따라간다고 한다. 우리배가 가는 곳이 우리의「움직이는 영토」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라 할수 없는 세상이다. 지금 세계의 바다는 1천억달러의 해운시장으로 붐빈다. 해운국들은 이 황금의 시장을 누비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해운은 거대한자본과 기술人力의 싸움이다. 이 싸움을 밀어주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기나라 해운업을 보호하는 각종규제를 강화한다. 해운경쟁의 파고는 그만큼 높다. ▼우리 해운의실력이 크게 자랐다. 세계 15위로까지 발돋움했다. 현재 국적선의 선복량이 6백만톤에 이르렀다. 남의 나라배를 傭船하는경우가 많지만 국적선 積取率은 50%에 다다랐다. 국내 어떤 해운회사는 자체의 총선복량이 1백만톤을넘어서 세계 20위권에 뛰어 올랐다. 이렇게 늘어난 국적외항선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외화가 23억9천만달러다. ▼해운인력의 진출도 크게 늘어났다. 35개국의 외국선에 우리선원들이 타고 다닌다. 그 인원은 2만4천여명 이라고 한다. 이들의 외화획득 또한 81년 2억5천만달러가 되었다는 집계다. 80년에비해 52·9%가 늘어난 셈이다. 해운엔 해난사고의 위협이 따른다. 한 해 평균 1백44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원인은 악천후와 배의 결함탓이 많다. 해운 사업의 또 다른 激浪을 짐작할수 있을줄 안다. ▼우리 경제의 뼈대가 수출이라면 해운은 그 동맥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상품의 수출입을 거의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수출을 늘리고 운임수입도 높여가야 한다. 국제 경쟁을 이겨내는 길은 싼 운임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우리 造船능력이 뒷받침이 되어 선복량을 늘려가야 한다. 한만청은 86년의 선복량을 9백40만톤으로 잡고있다. 오늘「해운의 날」을 맞아 「우리 상품은 우리 배로」라는 결의를 거듭 다짐해 두고싶다.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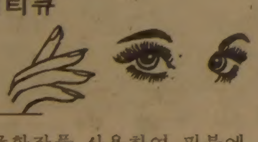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Annie's Beauty Care Center
(Hair Wizards)
♥여성의 회소식♥
美의센타 탄생

* 최신식 장비구입
* 여드름 치료
* 잔주름 제거
* 노화방지
* 살결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 매니큐-패티큐

* 불란서 최고급화장품 사용하여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
* 털이 많아 고민하시는분.
* 바른화장법 지도.
6093 Yonge St. (영×휜치)
Yonge 센타 플라자 내
☎: 223-7884~5 Mrs. 리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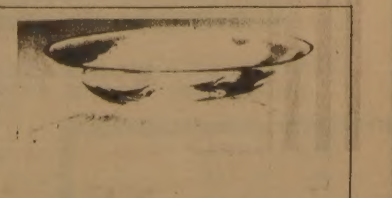
본코리아타운 번영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주식회사 설립에관한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교민여러분의많은 참석 있으시기 바랍니다

때 : 1982년3월26일(금)오후7시
장소 : 693 BLOOR ST.W.(CLINTON HOTEL)
제목 : 중소기업 육성과 주식회사설립(교재는 당일배부)
강사 : 정필주 선생

코리아타운 번영회

드디어 콘텍렌즈 취급!

금번 불루어 안경점에서는 콘택렌즈부를 증설하고 교민에 한하여 특별 세일코자 합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로써 교민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애용을 바랍니다

특별세일기간 : 82년4월말까지

불루아 안경점
주소 : 635 BLOOR.ST.W.
전화 : 531-2236

良民2백명 무차별虐殺

과테말라 反政거점 原住民村서

所屬불명 武裝집단소행

總選 하루전 男女老少 구별없이 목베

【과테말라시티11日UPI=聯】과테말라반정부세력근거지의 하나로 알려진 서부 퀴체성의 4개 원주민촌락이 소속을알수없는 무장집단들에의해 유린되어 약2백명의 주민들이 무차별대량 학살당했다고 프렌사·리브레신문이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퀴체성관리들의 말을 인용、퀴체성의 4개벽촌을 점령한 소속미상의 무장집단이 촌락주민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않고 목을베는등 무참한 방법으로 학살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같은 대량학살은 과테말라총선 전날인 지난6일 발생했으나 사건발생지역이 너무 오지에 위치하고있기때문에 뒤늦게 전해진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같은 대량학살은 좌익게릴라와 과테말라정부군이 싸우는 와중에서 금년들어 두번째 발생한 양민학살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퀴체성은 현 과테말라군사정부에 대항해 싸우는 좌익게릴라들에게 협력하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비좁은 가다피 記者會見場 오스트리아방문 이틀째인 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오른쪽에서두번째)는 11일 그가 체류하고있는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그러나 이날 회견장소가 지나치게 좁아 기자들의 활동이 극히 제한을받았고 미리 촬영을 끝낸 사진기자들도 회견이 끝날때까지 꼬박 기다려야했다。【빈11日AP電送=聯合】

〃對니카라과工作 美CIA 진행중〃

【마나과10日AP=聯】니카라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美중앙정보국(CIA)의 계획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니카라과국민들은 이에 대비해야할것이라고 하이메·휠로크 니카라과 농업상이 10일 경고했다.

미국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휠로크농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CIA는 니카라과로 하여금 인접 온두라스국경지대에 군대를 배치시키게 하여 침략자의 인상을 심게한 뒤에 미주기구(OAS)상호방위조약 규정을 이용、이곳에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휠로크농업상은 이어 지난1월 적발된 니카라과정유소와 시멘트공장 폭파음모에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관련돼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의 교량과 발전소등을 폭파하려는 음모가 당국에 의해 사전 분쇄됐다고 말했다.

유고서 대규모 群衆시위

알바니아靑年들 코소보獨立요구

【베오그라드11日AP=聯】유고의 남부 코소보성에서 11일 코소보독립 유혈폭동 1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시위가 벌어졌다고 유고관영 탄유그통신이 보도했다.

이통신은 이날 코소보성 프리스티나에서 수백명의 알바니아계 청년들이 지난해봄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유혈폭동 1주년을 맞아 코소보성의 분리독립을 요구하는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수리남事態 계속혼미

右翼쿠데타勢力 정부군과對峙

【파라마리보11日AP=聯】수리남 좌익군사정권에 반기를 든 반군들이 수도 파라마리보의 주요군사시설을 접수하고 상업지역을 장악한반면 좌익군사정부지도자들은 포트질란디아해군기지를확보하고 군사쿠데타를 분쇄하겠다고 다짐하고있어 수리남사태는 아직도 혼미속에 놓여있다.

고레 륙무상사가 이끄는「민족해방평의회」가 군사평의회를 전복하고 좌익군사정권지도자인 데시·부테르세중령이 체포된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수리남의 S·A·통신은 부테르세중령이 수도파라마리보의 사태를 다시장악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보도들은 수도 파라마리보의 메모리 병영과 기고에서 총격전이 벌어진후 람보구스중위가 수도를 장악했고 부테르세대령도 포트질란디아의 해군기지를 장악하고 있는것으로 전하고있다.

對日制裁 움직임 EEC貿易 역조로

【브뤼셀11日AP=聯】EEC(유럽공동시장)는 對日무역적자를 감소시키기위해 무역관세 일반협정(GATT)에 입각한 對日제재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고 EEC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

中南美뒤흔드는「정치地震」

—테러의 불길 번져만간다

貧富격차등 심한 經濟難이 불씨

自治요구 인디언도 合勢

總選철맞아 폭력이 亂舞

中南美대륙전체가 심한 정치적 경련을 일으키고있다.

이미 니카라과에서 뿌리를 내린 좌익혁명의 물결은 엘살바도르 좌익게릴라들의 춘계대공세를 신호탄으로 과테말라、콜롬비아、페루、온두라스、아르헨티나지역으로 폭발적으로 확산、中南美전역이 우익군사정권과 좌익및 반정 게릴라간의 戰場으로 화하고있다.

지난 9일 과테말라에서는 부정선거에 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 벌어져 시위군중과 군경사이에 무력충돌이 빚어졌는가하면 북부4개마을에서 인디안 2백여명이 정체불명의 단체에의해 대량으로 학살된것으로 11일 보도됐다.

이어 10일에는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각각 대통령관계가 좌익게릴라들에게 공격당하는가하면 수도 곳곳에서 폭발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또 같은날 북부대서양연안에 있는 수리남에서는좌익군사정권에 반발한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최근들어 엘살바도르내전은 좌익게릴라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듯 중남미에서 격화되고있는 정치적 소용돌이는 엘살바도르게릴라들의 공세강화와 과테말라、페루、엘살바도르등 중남미에서의 총선거철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그러나 좌익혁명의 씨앗은 너무나 깊게 뿌려져 뿌리역시 깊게 자리잡고 발아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인들은 지난수백년간 일부지주와 결탁한군부세력에의해 수탈되어 찌들대로 찌든가난과 우익군사정권의 인권탄압에 시달려왔다는 공통점이 바로좌익게릴라들이 뿌리를 내리게한 토양이 되었다.

거의 모두 우익군사정권이 집권하고있는 중남미국가들의 개인소득은 멕시코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1천달러미만에 맴돌고 있다.

거의 예외없이 우익정권들은 고개를 드는 좌익및 반정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죽음의 특공대」(데드·스쿼드)」를 운용한다.

이「죽음의 특공대」는 엘살바도르、과테말라、볼리비아등에서 정적과 反政성향의 주민들을 수백명씩대량으로 학살함으로써 내외적으로 지탄을 받고있다.

과테말라의 경우 지난7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야당후보자3명을 포함、야당인사 1백여명이「죽음의 특공대」의 암살자 리스트에 올라 있었고 이중 후보한명이 시체로 발견 되었다. 좌익세력이 구조적으로 선거에 참여할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총을 들고 게릴라전을 펼수밖에없게 만들고 있다.

엘살바도르에서도 오는 3월28일이 총선거이지만 좌익세력들은 이「죽음의 특공대」가 무서워 선거를 보이코트하고 있는 실정이다.

「죽음의 특공대」는 지주및 부호들의사병과 비슷한 성격을갖고 우익정권의 유지에 앞장서 대량학살을 자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반정부감정및 좌익게릴라 활동에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고있다.

또 중남미제국에 소수민족으로 남아있는 인디안은 오지에살면서 중앙정권에 항상 불만을품고 자치적으로 살려는 성향때문에 박해의 대상이되고있으며 따라서 인디안들은 좌익이건 우익이건 가리지않고 反政게릴라 활동에 가담하고있어 중남미의정치분규는 더욱 복잡성을더해가고있다.

현재 니카라과의 인디안들은 산디니스타 좌익정권에 항거、미국지원하에 게릴라활동을전개하고 있으며 과테말라에서는 좌익게릴라의 중추세력이 되고있다.

미국은 중남미에서의 좌익게릴라운동을 소련-쿠바의 개입에의한 東·西분쟁으로보고 우익정권에 계속적인 군사지원책을 강구하고있으나 사실상 좌우익분쟁의 근본원인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

최근 수년간계속된 세계경제의 침체로인해 중남미의 주요수출품인 코피·바나나·설탕등의 원자재가격이 급격히 하락、경제적인 파탄은 돌이킬 수 없을지경에 이르고있다.

결국 가난을 해결하지못하면서 반대세력만을 탄압하고있는 정권들에대해 다혈질적인 국민성을 갖고있는 중남미인들은 좌익게릴라운동에 끌려들어가고 있는것이다.【崔海雲기자】

◇과테말라좌익게릴라들의 공격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군이 버스를 세우고 검문·검색을 하고있다.

캄、泰漁船 40여척나포

領海內 불법조업을 이유로

【트라트(태국)12日TNA=聯】베트남이 지휘하는 캄보디아의 헹·삼린군대가 무장어선을 이용、지난 7일부터 9일사이 태국·캄보디아접경해상에서 40여척의 타이어선을 나포했다고 태국의트라트성장이 12일 밝혔다.

방콕동쪽3백87㎞미터 떨어진 캄보디아접경 트라트성의 솜퐁·판수완성장은 한보고서를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나포된이유는 태국어선이 콩도부근의 캄보디아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했다는것이라고전했다.

이 콩도부근해상은 베트남이 이지역을 통해 크메르 루지저항군에 대한 무기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여기고 있는 지역이다.

核禁예비회담 擴大

美、3개國국한철회

【제네바11日AP=聯】미국은 11일 지금까지 美國 소련 英國에만 국한되어야한다고 주장해왔던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예비회담에 기타 유엔회원국들을 참여시키는데 동의했다.

美、레이저 宇宙基地 박차

研究費 대폭增額 움직임

【워싱턴11日AP=聯】美국방성연구계획국은 현재 우주기지 레이저 戰체제를 구축하기위한 연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고 로버트·쿠퍼국장이 11일 밝혔다.

쿠퍼국장은 이날 하원군사위연구개발小위원회에서 우주 레이저 기지설치연구를위해 83년회계 연도에 약1억5천만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하원에서는 이분야에서 소련이 보인 진보에 대항하기위해서는 연구예산을 5억달러로 증액시켜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왔다고 전했다.

우주기지용 레이저 무기는 강렬한 광선을 照射함으로써 미사일 공격을 조기에 경보하는 인공위성들을 파괴하는데 사용된다.

◇蘇·波·美지도자 假面시위 11일 스위스의 베른에서열린 폴란드 자유노조 지지시위에 참가한 세사람이 각각(왼쪽부터) 브레즈네프 蘇공산당서기장、야루젤스키 폴란드수상、레이건 美대통령의 가면을쓰고 풍자적인 구호를적은 포스터를 목에걸고있다。【베른11日AP電送=聯合】

체코反政 歌手탈출

★재판延期 틈타 國外로

타도라는 노래를불러 투옥된바있고 소요선동혐의로 기소돼 당국의 감시를 받아오던 체코의 반체제가수 카렐(찰리)·수쿠프가 처자와 함께 국외로 탈출했다。77인권헌장에도 참여한 수쿠프는 반체제가수로 찍혀 체코국적을 박탈당하고 집도 돈도없이 고생하다가 최근 그에대한 재판이 연기된후 국외로 빠져나갔는데 행선지는 파리인것같다。【프라하=AP】

海外토픽

대처、禁女클럽加入

★1백50년사상첫女性으로

마거릿·대처영국수상이 1백50년전통을가진 런던의 유명한 남성전용클럽 칼튼클럽의 처음이자 유일한 여회원으로 가입했다。

대처수상은 지난10일밤 1832년 개혁법안에 대항해 1투쟁한 영국의 완고한 王黨派가 설립한 이클럽의 창립기념일을 맞아 클럽계단의상단부에 걸린 그녀의 초상화를 제막、정식 회원가입절차로 마무리했다。

영국의 모든 보수당수상은 자동적으로 칼튼·클럽의 회원이되므로 대처 수상은 79년5월 집권과 더불어 남자왕당파의 요새인 이클럽에 침부、끈덕진 자격테스트를 받느라 분투했다。【런던=AP】

염소·羊도試驗管서

★濠 과학자들 교배成功

호주의 과학자들은 최근시험관아기 출산방법을 동물에 적용해 염소와양의 교배종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발표。

시드니대학의 연구원들은 가우더드라는 새동물의 생산 성공사실을 발표하면서 가우더드는 특히 노새같은 잡종동물과는 달리 생식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

연구원들은 특히 가우더드는 야생염소와 같은 야생기질을 갖고있으나 이를 가축화하여 사육할수도 있을것이라고설명。【캔버라=AP聯】

金값 계속下落

79년이후 최저수준

결혼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시세의 하락에 영향받은 국내금값이 계속 떨어지고있다。

12일 관련상가에 따르면 이번주초까지만해도 순금(99%) 1돈중에 소매 4만4천원에 거래되던 국내금값은또다시 돈쭝당 1천원이 내린 4만3천원에 거래돼 지난79년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外信안테나

◆멕시코서카를로스被逮說

멕시코경찰은 11일 전설적인 국제테러리스트「카를로스·재칼」로 보이는 한 사나이를 무기소지및 문서위조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한 경찰대변인은 이날 이 사나이의 장인으로 확인된사람의 제보에따라 멕시코시티의 한길모퉁이에서 3개의 권총과 여권3개를 소지한자를 체포했다고 밝히면서『경찰은 그를 카를로스로 보고있다』고 말했다。【멕시코=UPI】

◆아프간大使망명요청=방글라데시 주재 아프가니스탄대사 무아마르·안와르·카메르가 최근 임기를 마치고 대카를 떠났으나 본국에 귀국하지않고 파키스탄에서 정치적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대카=AP】

메아리

드디어「地震대피훈련」이라는 것이 등장하였다。地震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잦게 일어나는 탓으로 당국은 民防衛訓練 때 이에 대비한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우리땅도 지진안전지대는 아닌것같다。문헌에 나타난 지진 횟수를 보면 서기 1년부터 1900년까지 1천7백66회。이중 인명피해까지 생긴 진도 4이상으로 보이는 강진만도 73회나 된다。20세기 들어서서 지진계로 잡힌것은 60여회이지만 統計的으로는 모든 地震週期가 19세기말로 끝나고 1900년 이후로는 지진이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 뚜렷한「증가추세」에 있다는 실정。서울大의 地質學教授 鄭鳳日박사말을 들어보면—『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진의 작은영향권에 머물러 왔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진발생이 빈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韓半島에 대규모 地震이 일어날 가능성과 지진活性化조짐이 있다』。

지난 2월14일밤과 3월1일 새벽녘으로 보름만에 두차례씩이나 중부지역을 지진이 채질하였다。앞으로 언제 얼마만한 강도의 지진이 또 닥칠지 모를 일이다。이제는 누구도 지진이 없다고 장담할수 없게된것이다。「有備無患」이란 말을 새삼 상기케 한다。우리가 해야한 일은—。

地震대피

첫째로 地震豫知豫報制를 강화하는것이다。美國、日本、소련등 대국들은 地震예보를 위한 사전탐지연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가까운 지진多發지역인 日本은 1965년부터 연구조사費를 해마다 국가豫算에 계상하고있다。

둘째는 재해방지대책을 갖추해나가야 할것이다。여기에는 각종 建築物의 耐震대책도 포함해야한다。지난번 두차례 지진이 우리나라 中部지역과 동해연변을 엄습한후 建設部는 62년에제정된「건축법」을 개정하여、그동안 개발된 새로운 역학기술을 반영한 건축구조기술基準令을 따로 마련하기로 작정하였다。지금까지는 건축물에 대한「외부압력」으로 積載·積雪·風壓하중등 4가지정도밖에 규정치 않았다。

사실 地震力이란것이 우리나라에서는風壓 荷重보다 약했기때문에 地震力對備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고한다。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모든 건축물에 적용할耐力기준을 정하여 꾸준히 그리고 철저히 시행해나갈 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지진대피훈련을 평소에 실시해야 하겠다。日本、이탈리아、칠레등 지진다발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있다。지진에 대비한 훈련이야말로 40세건、50세건 年齡에 제한없이 모두가 받아두어야 한 民防衛훈련이 아닐까—。

인사이드

다시 바빠진 지스카르

鄕里지방의회出馬…하루8시간 遊說강행군

미테랑에 大權뺏긴 敗北씻고 捲土重來노려

작년 5월 프랑스와·미테랑 대통령에게 엘리제宮을 넘겨주고 落鄕한 지스카르·데스탱 프랑스前 대통령(56)은 한동안 그리스、캐나다등 해외여행과 케냐에서의 사냥등으로 모처럼 한가한시간을 가질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들어 지스카르의 생활은 다시 눈코 뜰새없게 바빠졌다。

오는 14일에있을 鄕里 샤말리에르市지방 의회선거에 출마를 발표하고 하루8시간 이상의 선거유세를 강행하고 있기때문이다。

샤말리에르市는 인구2만의 작은 전원도시。

지스카르는 24년전 샤말리에르市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첫발을 디뎠고 15세기풍의古城을 가지고있을만큼 이곳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있다。

지스카르가 압승할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선거유세에 임하는 지스카르의 자세는 지난번 패배한 대통령선거전과는판이하다。

국민위에 군림하는「황제대통령」으로 통했던 지스카르의 지나친 엘리트의식은 찾아볼수없다。

고작 1만2천여명인 유권자를 상대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유권자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다。

10개월동안의 野人생활이 그의 대통령선거 패배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권위의식을씻어주었는지도모른다。

『국가를 위해 마지막봉사를하기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공직생활을 시작 하겠다』는 지스카르의 당당한 출마변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판자들은 지스카르의 이번 출마를 정치복귀를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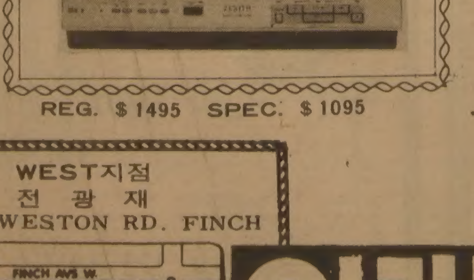
야당인 민주프랑스연합(UDF)내의 反지스카르派인사들은『지스카르가 이번 선거에 압승함으로써 패배자로서의 이미지를 씻고 차기대통령선거에서 우파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자크·시라크 현파리시장의 인기에 제동을 걸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하원의원등의 순서를 밟아 7년大權을 노리는게 傳統으로 되어있는 프랑스정치 풍토를 고려에 넣을때 지스카르의 지방의원입후보는 지스카르가 차기선거에서의 捲土重來를 노린다는 추측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李炳圭기자】

◇「황제대통령」의 이미지를씻고 국민과 친해지려하는 지스카르·데스탱。향리인 샤말리에르市 지방의회 선거에 입후보해 선거유세에 열을 올리고있다。

☆봄철스페샬대매출☆

ZENITH



REG. $1495 SPEC. $1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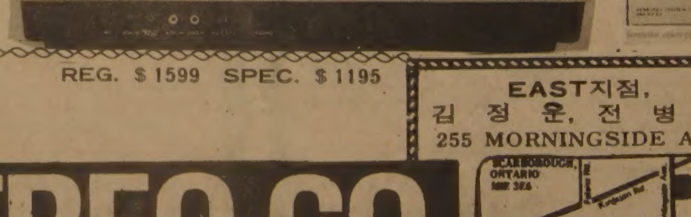
비데오는 역시 제니스 (BETA), J.V.C(VHS) 입니다

＊14DAYS PROGRAM (14일간 녹음가능)

＊HEAD 4개

＊REMOTE CONTROL 포함

JVC Shuttle Search



REG. $1599 SPEC. $1195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 STEREO CO.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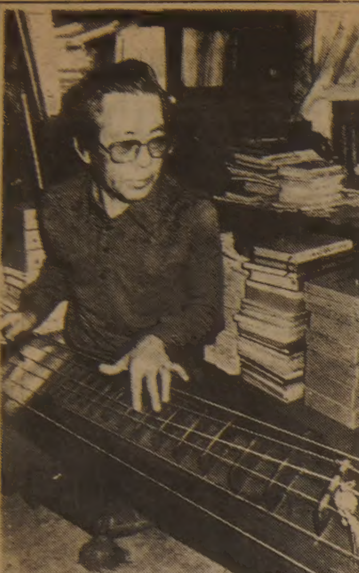
國樂발전에 외길半世紀

서울大 停年退任한 張師勛박사

제자들 論文集「花前態…」선물

著書 21권…理論체계화

"藝術생명은 格調와品位"


◇「國樂발전」의 외길인생을 살아온 張師勛박사。거문고 奏者로 시작했으나 「국악의 이론화」에 선구자역을 해냈다。

『올해가 國樂에 몸을 담은지 만51년이 되는 해이지요。20년 넘게 몸담은 서울大를 정년퇴임했지만 한편생 국악과 더불어 살아왔기때문에 정년퇴임이 별로 문제가 되지않아요。앞으로 국악계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지난달 27일 국민훈장석류장을 받은후 서울大를 떠난 국악학자 張師勛박사(66)의 정년퇴임소감이다。고집스럽고 외곬적인 성격때문에 주위로부터 냉소와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한국國樂의 체계적 이론화 작업에 끼친 그의 업적을 부인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반세기동안 「國樂槪要」「韓國音樂史」「韓國傳統音樂의 硏究」등 21권의저서와 1백8편의 論文、2백50편의 논설·평론·隨筆을 각 일간지및 잡지등에 썼고 발표했다。

『여백의 지면이나 방송출연요청이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쓰고 이야기했어요。國樂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하고 싶고 들려줄 말이 너무 많아서요。고열에 시달리면서 심지어는 기차시간이나 비행기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출연하고 썼어요』

이번 정년퇴임을 기념、韓萬榮 金靜子 崔鍾敏교수와 무용가 文一枝씨등 제자 50여명이 힘을 합쳐 반세기 동안 국악에 걸친 張박사의 삶과 「國樂에 관한 이해」를 돕기위해 수없이 얘기했고 주장했던 말과 글들을 모아 그의 文集「花前態와 花柳態」(修書院刊)를 펴냈다。

「花前態」는 춘앵전(春鶯囀)에서 춤을 추며 노래부를때 치아를 드러내고 살포시 웃는 웃음으로 「우아하고 자연스런 모습」을 표현할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고 「花柳態」는 韓末 兪彰煥의 詩속에 나오는 말로 「눈꼴이 시도록 보기 싫은 꼴」이란 뜻을 담고있다。

『주위에서는 왜 그렇게 어려운 제목을 붙였느냐고 합니다만 「격조높은 예술과 품위없는 예술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을 꼭 찍어내는 말이 그 한자어 밖에 없어서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때문에 法官이나 변호사가 되려다 좌절감을 맛본후 15세때 이왕직 아악부원 양성소에 들어가 거문고 타는 법을 배운 것이 국악을 하게된 계기가 됐다는 張박사는 『한번 마음먹은 것은 옹팡차게 하는 고집스런 성격으로 51년을 「국악의 발전」이라는 외길에 삶을 걸게 되었다』고 말했다。

古樂譜를 뒤지기위해 고서점을 헤매고 집안가득히 먼지나는 헌 종이조각들을 모으면 『저사람 어떻게된것 아니냐』고 주위에서 수군거렸지만 이탄탄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국악을 이론화시키고 생각지도 않았던 문학박사학위를 68년 서울대학교로부터 받을수있었다고 張박사는 비위에 거슬리는 일은 참고넘어가지못하는 괴팍한 성격때문에 여러차례의 필화사건과 소송까지 당했다。그러나 『소신껏 쓴 글이므로 지금도 후회가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오른쪽눈의 백내장으로 「國樂문헌자료집」「歌曲論」「거문고의 정통기법에 관한연구」등을 쓸일이 걱정이된다는 그는 이번 학기부터 淸州大무용과교수로 계속 강단에선다。

그의 정년퇴임기념문집「화전태와 화류태」의 출판기념회가 6일하오2시 장충동국립극장그릴에서 열린다。 【韓成子기자】

「杜詩諺解」간행 5百돌맞아 새 연구서「詩聖杜甫」

李丙疇박사 30년연구結晶

"現代詩가 맑은물이면 杜甫의詩는 깊은연못"

「貧交行」

손 바닥을 뒤집으면 구름이요 엎으면 비라니、
변덕스런 무리들을 어찌 이루 다 헤아리료、
여보게、보지 않았나、관중과 포숙의 사귐을、
이 道를 요새 사람들은 흙처럼 여기다니。

飜手作雲覆手雨(번수작운복수우)
紛紛輕薄何須數(분분경박하수수)
君不見管鮑貧時交(군불견관포빈시교)
此道今人棄如土(차도금인기여토)。

【「杜詩諺解」卷5에 수록된 杜甫의 詩「貧交行」(빈교행)。이 작품은 「비록 식은 밥물림상을 받고 살아도 평생 꼿꼿하게 살겠다」는 杜甫의 속마음을 잘 나타내고있다】

우리조상들이 선비의 필수과목으로 소중하게 여겨왔던 「杜詩諺解」간행 5백돌을 맞아 杜甫의 詩와생애를 정리한 새로운 연구서가 나왔다。우리나라에서 첫째가는 杜甫연구학자로 꼽히는 李丙疇박사(東大)가 쓴「詩聖杜甫」를 꾸며냈다。이책은 李박사가 杜甫에게 바쳐온 30년연구를 結晶한 것으로、杜甫의 詩작품을 분석하며、고단한 방랑자로서 살았던 그의 평생을 그리고 있다。杜甫는 살고있던 동안에는 소홀하게 다루어 졌으나、唐의 中期에 이르러 빛을 받기 시작해서 李白과함께 唐詩의 祖宗으로 숭배됐다。

◇杜甫의 石刻像

◇李丙疇박사

杜甫는 죽은뒤 학자들로부터 어떤시인들보다 가장많은 연구를받은 시인으로 유명하다。첫 註解書가나온 1039년부터 지금까지 1천여명이상의 학자들이 주해서를써내 1천명의 빼어난 주해그룹「千家註」를 이루고있다。朝鮮人으로「千家註」에 끼어있는 인물은 澤堂 李植 1인이 있을뿐이다。우리나라서 처음 杜詩를 주해한것은、成宗12년(1482년) 杜詩를 아는 스님들과 선비들을 동원해서 엮은「杜詩諺解」로、이후 많은종류의 杜詩주해서가 나와 선비들이나 시를 공부하는이들이 꼭 들어가야하는 필수과목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우리나라에서 杜甫가 차지했던 자리는 엄청난 것이었지요。선비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杜詩를 공부했는지、申緯의 표현처럼 杜詩가 집집마다 신주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었지요。이같은 흐름에 따라서 杜詩集의 공급도 유난스러워、큼직한 호화판주해서부터 손바닥만한 크기의 책까지 수많은 종류가 나돌았어요。저도 마찬가지로 杜甫에 빠져서 이제까지 30년간 그의 詩에대해 공부해왔는데、아직도 그를 뚜렷하게 알수가없어 「千家註」속에 끼고싶은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요』

李丙疇박사는 杜甫의 시와 주해서등 참고문헌 수집을위해 국내외를 두루돌며 찾아 모두 2백70종이넘는 杜甫서적을 모아가진「杜狂」으로알려져있다。그는「杜甫에대한 연구주해서 분량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것으로、셰익스피어연구서도 두보에는 미치지못하고있다」고 평한다。杜詩는 조상들의 詩學과 멋진 정신생활을 도와주었지만、현대인에게도 읽는 즐거움을 주는 작품으로 평해진다。인간 본연의 實存문제를 다루는 깊숙한 철학과 自然의신비한조화와 세상살이의 온갖 맛을 그리는 그의 詩는 삶 전체를 진진하게 나타낸다。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신선한 감각、우람하면서도 어렴풋하게 흘러가는 부드러움、말속에 또 다른 말이 담기고 글속에 또 다른 글이 담겨있어 무한한 깊이를 가진、해석이 쉽지않은 시인으로 평가된다。

『杜甫의 詩를 읽다가 우리 현대시를 읽으면 느낌이 확실이 달라져요。두보의 시는 검은 이끼가 덮인 깊은연못이어서 그 속에서 용이 노는지 가물치가 노는지 보이지 않는데、현대시는 그저 맑은물이어서 고기들이 노는 모습이 환히 잘 보이는 기분이 들지요。두보의 그 깊은 감과 같은 詩의 주머니속에서 그 당시 세상이 말하기를 꺼렸던 時事가 거침없이 나오고、인간의 사는 이야기가 정감있게 묘사되고、부처의 無常과 자비가 노래되고 老莊의 物我一體의 아름다운 觀照가 자유자재로 나타났어요。이같은 깊고 넓은 시세계로 그의 시는 중국 詩史의 최고봉이 될수 있었지요』

杜甫는 매양 고독하고 힘겨운 삶을 산 불우한 시인이었다。그의 가차없는 諷刺와 거침없는 발언은 귀족과 선비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이어서 그의시는 당시출판됐던 選集에도 끼이지 못했다。두보는 「같이글배운친구들은 제가끔 벼슬하고 가벼운 옷에 살찐 말을 타고 다니지만、나의 집안의 事業은 오직 詩뿐이다」고 자신에대한 푸대접을 스스로 위로하곤했다。그리고 「비록 식은 밥의 물림상을 받고있어도 평생을 꼬장하게 살겠다」고 쓰곤 했다。두보는 가난과 실망으로 이집 저집을 찾아 萬里를 떠돌면서도 「책이란 책은 모두 읽어젖히고、붓 내려감이 신지핀듯」해 방랑의 길위에서 많은 작품을 써냈다。두보의 시는 거세고 묵직한 風格을 가지면서도 도란거리는듯한 섬세한맛이 있는 넓고넓은 詩의 호수로 비유되곤한다。李박사는 「詩文學의 으뜸가는 古典으로 정신생활의 풍부한 곳집으로 평가되는 두보의 시가 현대 시인들의 詩作수업에도 크게활용될수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黃桂淑기자】

密輸패턴 달라져 의약품등을 치중

밀수품의 대종이 종전의 보석、녹용、金등에서 마약등의 의약품류와 음식료품등으로 바뀌고있다。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가장 많이 밀수된 품목은 마약등 의약품류로 36억5천3백만원어치에 달해 지난 한햇동안의 밀수액 1백39억2천9백만원의 26·2%나 됐다。

축、가격과 고객의 결제기간 균일화등 경쟁제한행위를 해왔다는것이다。

古物商주인이「무궁화奬學會」

4년째 不遇학생에 溫情쏟은 梁承一씨

7살때 孤兒… 막일로번 千만원내놔

해마다 어려운 학생 30여명 돕기로

◇梁承一씨

고아로 자라 자수성가한 고물상주인이 장학회를 설립、4년째 불우한 학생들과 이웃을 돕고있다。

경남昌原市 東井洞 고물상 中央기업사대표 梁承一씨(38)는 지난79년 갖은 고생끝에 모은돈 1천만원으로 무궁화장학회를설립、해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왔다。梁씨는 올해도 지난5일하오3시 이웃돕기 성금전달식을갖고 중학생 15명에게 1인당 7만원씩、고교생 10명에게 10만원씩 대학생 2명에게 30만원씩의 장학금을 각각전달했으며한번 직업훈련원에 70만원、생계곤란자 22명에게 백미1가마씩을 전달하는등 모두 4백12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았다。

4년째 이같은 봉사활동을 계속하고있는 梁씨는 京畿도安城郡一竹面和谷里에서 가난한 농부의아들로 태어나 2살때 아버지를、7살때 어머니를여의어 고아가됐다。

9살되던해 서울로 올라가 식당심부름꾼 구두닦이등 막일을해오면서 푼푼이 저축、조그마한 고물상가게를 마련했으나 배운것이 없는데다 경험까지 부족해 그나마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梁씨는 이같은 좌절에 굴하지않고 昌原으로내려와 고물상을 차린후 가게운영에 혼신의힘을 쏟기시작했다。

바로 이무렵 昌原공단과 馬山지방에 호경기가 밀려와 梁씨는 昌原의주 3년여만에 완전히 생활기반을 잡게 되었으며 1천만원의 목돈까지 적립하게됐다。

평소 못배운 한을 풀길이 없어 돈만 벌면 장학사업과 자선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해온 梁씨는 이때부터 그의 꿈을 실현해 나갔다。

지난79년2월 적립한 1천만원을 모두 장학기금으로 내놓고 무궁화장학회를 설립했으며 해마다 사비3백~5백만원까지 더 보태 20~30명의 학생、생계곤란자、BBS회원등을 돌보고 있다。

지금도 1백50여평의 고물상에 10평짜리 집을지어 근면、검소하게 생활하고있는 梁씨는 『어렵고 불우했던 과거를 더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올바른 삶의 자세일것』이라고 겸손해했다。 【昌原=聯合】

結婚 겨울에 많이한다

한국갤럽연구소 조사

"陰歷나이 한살 더먹기전에"

12月 피크 17%·1月 13%

겨울37·가을29·봄26·여름7%順

◇흔히 봄·가을을 결혼시즌으로 여기고있는 사회통념과 달리 겨울、특히 12월에 가장 많이 결혼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국인은 봄과 가을보다 12월에 가장 결혼을 많이 하고 있음이 최근 여론조사결과 밝혀졌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소장 朴武益)에서 기혼남녀 1천7백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상밖으로 12월에 1년중 가장 많은 17·7%가 결혼했으며 6월에 가장 적은 2%만이 결혼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또 계절별로도 겨울37·3%、가을 29·3%、봄 26·5%、여름 6·9%로 역시 겨울결혼이 가장 많았다。

겨울과 12월에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궁합·택일등을 음력에 의존하는 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음력설이전 1살 더 먹기 전에 노총각·노처녀 신세를 면해야겠다는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은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혼을 많이 한달은 12월에 이어 11월 15·7%、1월 13%로 단연 겨울철에 몰려 있었으며、결혼을 많이 하지 않은 달은 6월 2%、7월2·5%、8월 2·4%로 여름철에 집중돼 있었다。6、7、8월 석달 동안 결혼한 사람은 겨우 6·9%로 12월한달간의 37·9%에 지나지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이같은경향이 조금씩 바뀌져 가고있음이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즉 29세이하의 응답을보면 겨울결혼이 32·6%、봄 27·7%、가을 27·4%、여름 12·3%로 겨울결혼율이 상당히 준대신 여름결혼율이 (5·3%) 많아진 것이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궁합을보거나 택일을 하지않고 결혼하는사람이 늘어나고있는데 이때문에 겨울결혼이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역별로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 여름결혼율(8·6%)이 높은 대신 중소도시(5·1%)、읍·면(4·4%)으로 내려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을보였다。이것도 역시 도시보다 도 농촌에서 궁합、택일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인것같다。

교육수준별로는 여름과 겨울의 결혼율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는데비해 계층별로는 꽤 차이를 보였다。

즉 하류층과 중류층이 겨울결혼을 많이 하고있으며 상류층은 계절에 관계없이 결혼을 하고 있는 것。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의 朴武益소장은 결혼할때 꼭 궁합을 보거나 택일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조금씩 없어져가는 경향에 대비해서 겨울에 결혼하는 율이 줄어 들것 같다고 내다 보았다。

通貨증권 5백억원 4백63억어치 팔려

통화환수를 위해 한국은행이 12일 실시한 5백억원규모의 통화안정증권 일반공매입찰에 4백77억원이 응찰돼 이중 4백63억원어치가 팔렸다。

낙찰평균할인율은 91일짜리가 연18%(수익률18·84%) 1백82일짜리가 연18·5%(수익률20·37%)였다。

한국은행은 통화동향및 시중자금사정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앞으로도 필요할경우에는 통화안정증권을 계속 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의한쪽눈 사실분은…" 심장판막증 10代가호소

『저의 한쪽눈을 사실분은 안계신지요』

심장판막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忠北堤原郡松鶴面松寒2里 李돈희군(18·제천상업고등학교2년)의 지고싶은 의지의 절규이다。

李군은 어렸을때부터 심장판막증으로 고생해왔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못해 증세가 악화돼 사경을 헤매고 있으나 막노동으로 생활을 꾸려오던 아버지 李상화씨(45)마저 뇌막염으로 몸져눕게돼 병원비를 마련할길이 없다는것。 【堤川=聯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59>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⑯

목이는 이런 미순이를 보듬어안는 대신 저만치 떼어내면서 엄격하게 말했다。

『싫으면 집에 돌아가야지』

『싫어 싫어』

『그도 저도 다 싫으면 어쩌겠다는거야?』

『언니한테서 한달만、아니 일주일이면될거야。일주일만 숨어서 살테야』

『일주일후엔?』

『그땐 집에 갈수있어』

『일주일후에 갈수있는 집을 지금은 왜 못가겠다는 거야?』

『지금 돌아가면 나만 혼나。난 엄마아빠를 혼내줄려고 그랬는데』

미순이의 얼룩진 얼굴에 명랑한 장난끼가 서렸다。

『네가 어른들을 혼내주겠다구? 너참 재미있는 애로구나』

『하나도 재미있을 거 없어。엄마는 학교 떨어진내가 꼴도 보기 싫대。나같은 딸 둔게 창피해서 바깥출입도 못하겠다고 쓰고드러누워계셔。자식을 창피해하는 엄마는 혼좀 나야돼』

『그러길래 실력에 맞는학교에 갔으면 이런일이 없잖아』

『그것도 우리 엄마 소원이야。작년에도 경기여중갔다가 떨어졌는데 올해도 거기 아니면 안된다는 거야。작년에도 후기학교를 못보게했는데 올해도 또후기는 안된다니 미치겠어。언니도 생각 좀 해봐。계집애가 삼수씩이나 하면대학도 나오기전에 올드미스돼버릴건 뻔하잖아? 난 학교같은 건 빨리빨리 졸업해버리고 싶어』

『너 참 맹랑한 애로구나』

『엄마도 맨날 나보고 그래。딴 머리는 잘 도는데 공부 머리만 멀돈다나。하긴 공부 머리 잘 도는 애가 제일이지만 학교만 다 졸업해봐、딴 머리 잘 도는 애도 알아주게될걸』

『나도 네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정말?』

『그래 나도 네가 학교를 빨리빨리 졸업할수 있도록 도와주고싶구나。내가 이제부터 네 편이 돼줄게 너도 내 말 잘 들을래?』

『무슨 말을 잘 들으라는지 말 안해도 다 알아。집에 가라는 거지? 우선 날 내쫓고 보려고…。그렇지만 여기서 내쫓겨도 집엔 안갈거야』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애구나。며칠 있다들어가면 엄마만 혼날줄 알지만 결국은 네 손해 겁。후기학교 시험 볼 날을 놓치고 말테니까。넌 어떡허든 후기시험을 봐야돼』

『엄마가 안 보낸다니까』

『어머니 생각도 작년하곤 또 다르실거야。너도 벌써 올드미스 될 걱정을 하는데 어머니라고 왜 그런 걱정이 없으시겠니。다만 지금은 노닭이 크셔서 만사가 귀찮으시겠지만 그럴수록 당사자라도 제 할일을 포기하면 안돼。만사는 때가 있는거니깐』

『그럼 어떡하지? 언니』

후기학교 시험 볼 날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소리는 제 설득력 있게 먹혀든 모양이었다。명랑한 옹고집으로 굳었던 미순이의 표정이 흐리기 시작했다。

『내가 암만해도 너를 데려다줘야할까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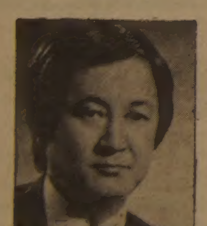
목이가 시계를 보면서 말했다。

『언니。언니하고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내일 가면 안될까?』

『안돼。내 직장에 폐 끼치는 일은 하고싶지않아。너의 엄마 보통 극성이 아니신것 같은데 여기서 널 재웠다고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면 곤란해지는건 나뿐아니라 여기 원장선생님까지 난처하게돼』

533-2361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쭉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레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네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사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샵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문학영화, 전설…

비디오

VIDEO··VHS.BET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3시간)

전설의 고향 — 학녀, 3종지도, 정승골 대감, 조강지처, 우는바위
TV문학관 — 억마, 배따라기, 청산댁, 무진기행, 산상에 서다, 삼포로 가는길, 청제, 메밀꽃필 무렵등….
영화 — 육군사관학교, 낙도의 무지개, 창과 이슬, 전우가 남긴 한마디, 다정다한, 배삼룡의 일생, 고교얄개전, 모험대 소년
코메디 — 웃으면 복이와요, 코메디 출동, 폭소대작전, 김희갑 전집,
쇼 — 쇼11, 쇼2000, 100분쇼, 쇼쇼쇼, 이미자전집, 최희준전집, 정윤희 생진, 가요싸롱, 흘러간 노래모음, 싱글벙글쇼, 5천만의 대행진등…50여편.
수사극 — 간첩체포 일화, (얼어붙은 강, 여울의 소리, 고향이 부르는 소리), 수사반장, 형사 외 7편
사극 — 암행어사, 포도대장, 대명, 각각 10여편
민속 — 팔도대합전, 한국민속경연대회, 전국민속대합전, 푸른 조국, 청자빛 하늘아래
일요드라마 — 소망, 부부, 한국의 미, 엄블가족등 10여편
기타 — 인간가족, 사랑의 제철6권, 제1공화국 10여편, 동심초, 국군의날 기념,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광주제일고 : 선린상고)
경연대회 — 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 당선작 "추보", 제11회 전국노래자랑 춘천편
어린이용 — 우주 대작전, 왕나라, 모험소년, 15소년표류기, 죽일의 코스, 정이의 세계여행, 하이랑 우주소년, 우리들의 광장, 만화동산, 양개시대, 호랑이 선생, 마징가, 영지공주등 50여편
한국말 외화 — 닥터지바고, 레미제라블, 죽음의 코스, 집없는 아이, 서양의 무법자, 전쟁과 애욕, 변사인, 이소룡의 전설, 피서지에서 생긴일, 복귀, 벤·후파워, 7인의 신부, 바리의 복수, OK목장의 결투, 소문난 형사, 리튠·다일스, 전화살인, 주리작전, 베르린 위기탈출, 더어 힌터등 40여편, 모두 230 여편의 프로그램과, 매월 20여편의 뉴 테입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536-1692
SUN-MI GRAPHIC STUDIO 531-6430 921-5903
454A BLOOR ST W TORONTO MIDOPA 31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청소년 性病문제 심각하다

病院찾는 환자중 40%나 차지
遊興街 감염 7년동안 2倍로
무료 진료하는 保健所 기피
抗生劑 남용하다 藥禍 불러

12일 보사부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윤락녀 댄서 접객부등 등록관리자가 6만명인데 이들의 성병감염률이 지난75년 5천6백3명이던 것이 81년에는 9천4백60명으로 거의배가 증가된것으로 집계됐다.

81년환자를 유형별로보면 임질이 4천8백명으로 50.7% 매독이 9백11명으로 9.6%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3천7백48명이 기타성병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등록관리자는 3만명으로 이들중 6천명이 보균자로 집계됐다. 보균자는 접객부나 댄서가 3천2백46명, 창녀3백70명 등인데 보사부는 성병감염의 증가가 성개방풍조, 청소년층의 도시집중, 국내외관광인구등 인구이전의 증가등이 원인이라며 일반시민의 경우도 20만명에서 23만명으로 늘어난것으로 집계되나 대부분 시민들이 수치심때문에 무료로 치료해주는 보건소를 찾지않고있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의경우 약물치료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있어 전국적인 보균자는엄청날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청소년감염자는 주로 치료비부담과 수치심이 겹쳐 혼자서 항생제로 치료하는경우가 많아 항생제에 의한 약화까지 겹치고 있다는것.

특수한경우지만 주한미군도 성병증가로 골치를 앓고있다.

지난해만도 1만5천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중4천여명이 페니실린으로 치료되지않는 악성이었다는것.

주일미군도 이런환자가 3백여명이있으나 대부분 한국을 다녀간사람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鍾路2街 B피부비뇨기과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5~6명의 청소년 감염자가 찾아오는데 원장 朴모씨는 예년보다 2배가까이 늘어난것이라고 말했다.

新村에있는 J피부비뇨기과의경우 성인60%에 청소년40%의 비율인데 이중고교생이 10%가량 된다는것.

P피부비뇨기과에 고교2년생인 아들을 데리고온 金모씨(45·여)는 아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성적이 떨어지고 고민에 싸여있어 조용히 불러보니 성병을 고백했다는 것인데 시기가 너무늦어 장기치료를해야한다는 의사의 말에 놀랐다.

上道1洞S약국 약사 P모씨(45)는 한달에 5~6명의 청소년이 성병약을 찾고있는데 이들중엔 약명을 지정해 사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3~4차례약을먹고 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감염추세는 막연히 파악될뿐 아무데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못하고있다.

학교보건기관에서도 해마다 한번씩 하는 중고생의 건강진단에는 소변검사가 포함되어있지만 소아당뇨나 신장염 유무등을 점검하기위한것일뿐이며 각직장의 신체검사에서도 성병에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과장 李熙永교수는 청소년의 성병감염률 증가추세는 여자임질환자들의 50~80%가 감염된사실자체를 느끼지 못해 치료를 하지 않는것이 감염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되며 약을 마음대로 살수있기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고 자각증세가없어지면 치료를 중단, 증세를 더악화시킨다고 경고했다.

李교수는 청소년들의 성교육도 좀더 근본적으로 시켜야하며 심하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경우등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실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때늦은 病院치료
성병에걸린 청소년들은 혼자서고민하거나 남몰래 치료하다가 끝내 전문의를 찾지만 때가늦어 완치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곤한다.
【사진은 기사안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수치로 「멍드는 젊음」

성병에 시달리는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는 세계의 추세에서 우리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일반인은 물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해마다 이환율이 급증하고 있고 「악성」까지 해외에서 들어와 번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성개방풍조가 가져온 빼아픈 부산물이다. 유흥가와 윤락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는 성병은 최근들어 주한미군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찰도 서울의 윤락가를 특별 보호지구로 묶어 성병화(禍)를 막을 방침을 세워야하는 단계에 와있다. 의외로 사태가 심각한 사실을 전해들은 교육계와 시민들은 성병에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결혼시의 건강진단서, 취업시의 보균검사 제도화가 거론되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惡性침투 性敎育시급
취업때의 診斷書환영
各界 의견

한편 서울시교위 산하 학교건강관리소 徐聖濟소장은 『올해부터 본격실시할 순결교육에도 「성병의 무서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것』이라면서 보사부가 성병을 의료보험진료과목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은 잘한일이라고말하고 이미 시달된 올해 중고생의 건강진단지침에는 성병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있지만 이를 위한 정밀검사가 추가되는것이 바람직 할것이라고 말했다.

漁船도난… 木浦근해 수색
武器 절취범에 대비 非常

속보=한전여수지점무기고 총기도난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木浦에서 도난당한 어선을 범인들이 타고 도주했을것에 대비, 12일 하오부터 목포인근해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있다.

경찰의 이같은 해역수색은 11일밤부터12일상오 6시사이 목포시 신정동 삼학도66 동화석유상사앞 선착장에 정박중인 멸치잡이어선(주인 조현영·49·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49)인 2톤급 동력선이 도난당했기 때문이다.

배주인 조씨에 따르면 11일밤7시께 고기잡이를 마치고 부두에 정박하려고 할때 30대로 보이는 남자1명이 다가와『참 배가좋다』고 말을 건넨후 시내쪽으로 갔었는데 다음날 새벽에나와보니 배가 없어졌더라는것.

경찰은 조씨의 진술에따라 목포 삼학도 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백67㎝ 가량키에 검은색 상하의를입고 장발을한 남자와 배를 수배중이다. 【木浦=聯】

趙名人 1대1
10段戰 2국이겨

【東京=宋孝彬특파원】趙治勳(25)名人·本因坊은 11일 산께이(産經)신문주최 제20기十段戰(日本제4위기전) 5번승부 제2국에서 오오다께(大竹英雄)10段에게 2백29수만에 두집반을 승리, 1국의 패배를 설욕했다.

이날 상오9시부터 日本가나가와(神奈川)縣 유가와라(湯河原)온천 石亭호텔에서열린 제2국에서 趙2관왕은 白을 들고 大竹10段과 불꽃튀는열전을 벌인끝에 하오7시44분 귀중한 승리를쟁취한것이다.

이로써 十段戰도전기는 1승1패를 기록했는데 제3국은 오는25일 日本 松山에서 열린다.

예비군武器 훔친자
自首하면 최대관용
全南 道警국장

【光州】全南道警국장은 12일하오 한전麗水지점 무기고 총기절취범들에게 하루속히 자수를 권유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윤국장은 이 담화에서 『현재경찰의 수사가 압축되고있어 범인의 체포는시간문제』라고 밝히고『이런 상황에서 범인들은 공포감에 떨지말고 자수하여 새로운 삶을 찾을것을 거듭 권유한다』고 말했다.

윤국장은 범인이 자수해올경우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의관용을 베풀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麗水=聯】

"銃器 절취범 빨리 잡도록"
安치안본부장

치안본부는 12일 전북도경에서 전남북 충남지역경찰서장회의를 열고 麗水총기절취범에대한 공조수사체제와 대간첩대책등 당면업무를독려했다.

安應模본부장은 이어 慶州에서 부산 대구 경남북지역 경찰서장회의를 주재했으며 14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지역 경찰서장회의를 서울시경에서 열 방침이다.

민방위날 地震대피훈련
火災부터단속 집밖으로 나가도록

내무부는 오는 15일불시에 실시하는 민방위날훈련때부터 전국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무부의 이같은조치는 금년들어서만도 전국적으로 두번이나 지진이일어나는등 최근 지진이 빈발함에따라 취해진것인데 민방위훈련중 지진전문가를 동원, 대피 피해복구등 행동요령을 교육시키기도 한것.

◇기본행동요령 ▲화재예방 ▲창문을 열어두고 견고한 가구밑으로 대피 ▲축대담장 절벽에대한 주의

◇장소별 대피요령 ▲화기를 단속하고 건물붕괴위험이 있을때는 즉시 밖으로 대피한다. ▲진동으로 떨어지거나 넘어질 물건이 있는곳을 피할것. ▲고층건물의 승강기는 타지말것. ▲극장·백화점에서는 혼란을 막도록 옥내방송으로 대피를 유도해야한다. ▲골목이나 하천 하수도의 복개는 피할것. ▲지하상가나 지하도에서는 정전과 화재를 유의해야한다. ▲자동차에 탔을때는 일단 정지했다 심하면 밖으로 나올것. ▲해변은 급격한 해일이 일거나 조수가 빠질위험에대비할것.

處遇개선 탄원서 냈다고
고용원 21명 무더기解雇
忠南 잠업검사소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각계에보냈던 고용원21명이 집단해고돼 말썽이 되고있다.

忠南道잠업검사소(소장金光沐·49)에서 지난해말까지 일용잡급원으로 근무했던 高永愛씨(27·沃川郡沃川邑서대리24의5)등 21명은 ▲임금인상 ▲휴가수당지급 ▲생리휴가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종합민원실등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주장, 이를 시정해줄것을 12일 노동부 大田지방사무소에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검사소에서 1일 3천원씩의 수당을받고 근무해왔는데 검사소측은 이들에게 사전통고도없이 지난10일 모두 22명의 신규종업원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잃게됐다는 것.

한편 金소장은『신장분위기쇄신과 잠서유지를 위해 이들을 제외시켰다』고 밝히고『이들중 생계곤란자등을 부분적으로 재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大田=聯】

引上두부값 환원
企劃院지시 "導入價내려 引上요인없다"

두부값이 내렸다.

경제기획원은 12일상오 두부값을 최고50%까지 인상했던 전국연식품(두부및순두부)조합연합회를 불러 최근두부용 콩도입가격이 지난해가을이후 톤당 40달러(도입가 톤당85~2백90달러)나 떨어지는등 두부값의 인상요인이 없다고 지적, 즉시 가격을 종전대로 환원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과 지방의 일부 두부제조업체는『그동안 두부생산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제값을 못받아왔다』는 이유로 두부값을 33~50%씩이나 크게인상, 주부들의 반발을 사왔다.

商店옥상에 불
놀던어린이 셋燒死

【全州=聯】12일하오3시50분께 全州市殿洞1街216 남문가마니상회(주인 정동근·53) 2층 옥상에서 원인 모를 불이나 이곳에서 놀던 정씨의 3남 유현군(5)과 이웃천코너 주인 박갑식씨(31)의 장남 성모군(5) 성화양복점 주인 하순태씨(30)의 장남 세연군(5)등 3명의 어린이가 불에타숨졌다.

남문 가마니상회주인 정동근씨의 장남 철수(30)씨에 따르면 이날불은 옥상에 쌓아둔 폐품가마니와 폐지더미에서 일어나 10분만에 꺼졌는데 화재현장을 정리하다 옥상난간과 폐품더미사이에서 3명의 어린이가 불에타 숨져있는것을 발견했다는것.

경찰은 이들 3명의 어린이가 불장난을 하다 변을 당한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史上최대 明卵수출
東海北部지방 5개월간 千1百톤

지난해 겨울 개항이래 명태풍어를 이뤘던 동해북부지방은 명란수출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사상최대의 명란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립수산물검사소 注文津지소에 따르면 지난해10월이후 9일 현재까지 5개월간 관내 巨津·束草·注文津항등지에서는 염장명란 3백33톤 냉동명란 8백38톤을 비롯 모두 1천1백70톤을 수출, 46억4천8백만원(7백77만4천3백33달러)을벌어들였다. 【束草=聯】

地方短信

◇외로운老人에 TV등 선물
충북 堤原郡水山面 지준배 水山지서장은 지난 8일 관내 大田里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윤을녹 노파(72)에게 쌀3말과 TV수상기 1대를 전달하고위로했다. 【水山】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中級담배값 引下도

국무회의는 12일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副應, 제조담배판매가격 개정안을 의결, 현행4백원으로 돼있는 수정담배의 가격을 3백80원으로, 은하수와 한산도도20원을 내려 3백30원에 팔도록했다.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同시행령규정에따라 이날 국무회의의 심의를거친 이 담배판매가격개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대로 시행케된다.

三國시대 土器9점 발둑보수하다 발견

경북月城郡川北面龍明3里 金李雨씨(70)가 마을뒷산에서 발둑을 보수하다가 삼국시대의 장경호(長頸壺)고배(高杯)등 토기9점을 발견, 12일 月城郡에 신고했다.

이날 군당국으로부터 출토된 지역이 밀집된 지역이었으며 유물들은 삼국시대의 것이라고 밝혔다. 【慶州=月城】

永川구룡산에 산불
林野 30여정보태워

속보=11일상오 경북永川郡華北面 구룡산 중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야 30여정보를 태우고 7시간10분만인 이날 하오6시30분께 진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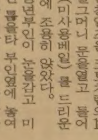
이날 불은 농부 朴무식씨(48·永川郡華北面安洞18)가 병충해 방제를 위해 논두렁 소각작업을 하던중 강풍에 불길이 산으로 옮겨붙어 일어난것으로 밝혀졌다. 【永川=聯】

善山이색3·3운동
3할增產節約 貯蓄

경북善山郡은 「빚없는부자마을」을 만들기위해 증산·절약·저축을 다짐하는 이색적인 「3·3운동」을 벌이고 있다.

12일 郡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각농가에서 농협으로부터 융자받은 81억원을용도별로 조사한결과 영농자금24억, 학자금 16억5천만원, 생활필수품 구매자금 16억5천만원, 소비자성금 24억원으로 나타났다는 것.

한국의 장발장
教會절도 20여차례 10代少女
動機없는 범죄에 모두가 당혹



12일상오6시 서울市鳳明洞성당. 엄숙한분위기속에서 남녀 신도들이 새벽미사를 올리고 있었다.

미사가 한창일즈음 코트차림의10대소녀가 살그머니 문을열고 들어와 미사보(미사용베일)를 드리운 중년부인옆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후 중년부인이 눈을감고 미사에 열중인 틈을타 부인옆에 놓여있는 검정핸드백을 재빨리 집어들고 중앙복도를 걸어나왔다. 순간 뒷자리에서 잠복중이던 사복형사가 소녀를 나꿔챘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赦)하고 착하게 살것을 맹세하는 기도의장(場)에서 생긴사건.

그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위로 착잡한 표정이 흘렀다.

신원이 崔모양(17)으로 밝혀진 소녀에게는 눈을감는 기도시간이틈치기하기에 안성마춤인순간일지도 모르나 그럴수는 없는일 아닌가.

소녀의 절도행각은 지난해 6월27일 경기富川市陶唐洞 삼선교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1만6천원이든 핸드백을 손쉽게 훔쳤던 崔양은 그후 仁川, 서울등지로 활동무대를 넓혔다.

崔양의 이같은 범죄는 자백만도 20여차례에걸쳐 1백여만원. 지난달 3일에는 경기素砂에서 3만5천원을 훔쳐나오다 발각되자 어머니가쫓아가 백배사죄, 풀려나기도했다.

교회와 도둑…. 얼핏 장발장이 생각난다. 장발장은 어린 동생들과 함께 살면서 먹을것이 없자 교회에서 촛대를 훔치지만 이소녀는 무엇때문에 도둑질을 했을까? 경찰에서 崔양은 그저『용돈이 없어서…』라고 말했다가『부모들이 고등학교에 보내주지않아 반발심이 일어났다』고 알듯 모를듯한 얘기를늘어놓았다.

「동기」가 없는 것이다.

우리주변에는 이처럼 손버릇이 나쁜 소녀가 적지않고 10대 우범자중에는 동기없는「장롯」이유없는「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소녀를 검찰에 넘겨 처벌받게 했다고해서 「개전」을 시킬수 있을까. 놓아주면 장발장 처럼 「선량한시민」으로 환원될수 있을까. 10대의 탈선을 볼때마다 선도책이 미흡한 우리사회가 답답하기만하다. 【方政俊기자】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Hunts 개업인사
Hunts Bakery
카나다의 유명 제과점인 Hunt's를 소생이 개업하였음을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성원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포여러분께는 생일 결혼 Cake에 대해서 10% 할인해 올리겠읍니다 일차 왕림바랍니다
김 준 호 배
Jane & Finch Shopping Mall
☎ : 635-0187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 금, 토, 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서울國際마라톤 코스 확정
都心피해 江邊도로만 돌아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1회 서울국제 마라톤대회 코스를 최종확정했다. 육상경기연맹은 당초 강변도로를 돌아 서울중심부를 통과하는 코스를구상했으나 이를 변경, 강변도로만을 코스로 사용키로 했다. 서울중심부를 관통하는 당초 코스는 5~6시간의교통마비와 혼잡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서울시경과 서울시청에서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7차례의 실측과 4차례의 코스 수정등 진통끝에 여의도광장을 출발, 강변도로와 잠실대교를 지나 마포대교를 거쳐 여의도광장에 골인하는 42.195㎞코스를 확정했다.

東亞·漢陽工完敗
靑少年 럭비大會

【臺北11日CNA=聯】 東亞高 럭비팀은 11일 臺北에서 속개된 제3회 汎태평양 청소년럭비대회 2일째경기에서 臺灣의 리우신팀에 20-7로 패해 2패를 기록했다. 東亞高팀은 10일 벌어진 1차전에서 臺灣의 치엔쿠오팀에 8-0으로 패했다.

漢陽工 럭비팀도 이날 뉴질랜드의 강팀인 팔머스턴·노드 고등학교팀에 19-3으로 패했다.

9개國 10개팀 참가確定
大統領盃 국제 蹴球대회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6월 5일부터 열리는 제12회 대통령배국제축구대회 참가팀은 9개국 10팀으로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금년대회 참가팀은 한국대표 花郞과 할렐루야·말레이지아·泰國·인도네시아·印度·이라크·바레인등 아시아지역 7개국 8팀, 그리고 유럽의 아인트호벤(和蘭)·레버쿠센(西獨)등 2개프로팀등 모두 10팀이다.

和蘭프로축구의 명문 아인트호벤은 許丁茂선수가 몸담고있는 1급팀으로 이번대회의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고 있으며 西獨의 레버쿠센은 분데스리가 1부 중위권에 속해있다.

할렐루야를 제외한 아시아지역 7팀은 모두 국가대표팀이 출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방식은 2개조 예선리그를 거쳐 각조 상위 2팀씩이 결승토너먼트에 올라 패권을 판가름한다.

전국中高排球대회
15일에 奬忠體서

82년도 봄철전국남녀중고배구연맹전이 15일부터 20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연맹전에는 一信女商을 비롯한 여고부 9개팀과 경북師大附高등 남고부 5개팀, 여중부 12팀, 남중부 5팀등 모두 31개팀이 출전한다.

▲남고부출전팀=慶北師大附高·白山高·晉州東明·城都高·裡里南星 ▲여고부출전팀=光州女商·慶北女商·南星女高·馬山第一·漢陽女高·慶福女商·誠庵女商·一信女商·瑞文女高

국산 "漕艇경기정" 첫선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기술에 의한 국산조정경기정 쌍·포가 건조되어 12일의 시조회(始漕會)를 더욱 뜻깊게했다.

漢江조정훈련장의 시조회에 맞추어 진수식을 가진 이 쌍·포는 木型기술자 南鍾祐씨(49)가 金南鍾씨(51·前조정훈련소장)의 기술지도를 받아 지난 겨울동안 각고끝에 완공시킨 것이다. 길이 13m, 무게 85kg, 선체두께 3㎜로만들어진이경기정은주로선체를 물엮어다소무거운것이흠.

그러나 조금이라도 가벼운 동체를 만들기 위해 얇게 깎은 특수 목재를 특수 접착제로 송곳이듯 붙이는 섬세하고 어려운공정을 거쳤다. 특히 13m 길이의 배를 만들 장소를 마련하고 접착제를 구하는일, 온·습도조절이 큰 어려움이었다는 것.

南씨는 기본형틀까지 준비하느라 2천만원 가량의 자금이 들었으나 앞으로 5백만원 이하로 경기정을 공급할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경기정 수입가격은 8백만원 이상.

조정협회의 崔仲一총무이사는 『국내에서 처음 제작된 배로는 성공작이다.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정 국산화에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衛】

文化財보호협 세미나 劉太鍾교수 연구발표
營養價 풍부한 우리 傳統食品
오곡밥은 비타민많아 春困症에도좋아
花粉넣고만든 송화다식 理想的健康食
山海珍味총동원한 신선로는 完全식품

◇추석에 먹는 송편은 갖가지 재료로 속을넣고 쑥을섞어 영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국문화재보호협회는 5일 한국의집에서「전통식생활의 개발」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李盛雨교수(한양대)의 「전통음식의 문화사적고찰」 劉太鍾교수(高大)의 「전통음식의 과학성」등 연구발표가 있었으며 궁중음식기능보유자인 黃慧性교수(成大)가 차린 수라상·교자상·조반상·다과상들이 선보이기도했다. 이중 劉太鍾교수의 「전통음식의 과학성」을 정리해본다.

정월대보름날먹는오곡밥은 쌀에 부족되기쉬운 비타민B군과 단백질, 지방을 보충해주는 영양식으로 의의가 큰 음식이다. 일반적으로 비타민B군이 부족하면 식욕부진·위장장애·피로·소화불량·내병성저하·피부염등에 시달리게되는데 오곡밥을 먹음으로써 건강유지는 물론 春困症도 이길수 있었다.

쇠고기국의 한가지인 설렁탕은 단백질이 부족했던시절에 개발된 전통요리의 하나으로 쑥, 수리취, 무우, 국화, 호박등 채소류를 적절히 배합하는 슬기를 보였다. 특히 이런 채소류는 향미를 좋게할뿐아니라 모두 알칼리성이어서 산성식품인 쌀과 잡곡과 조화를 이루고있다.

찹쌀을 시루에 쪄서 익힌 약밥은 上古시대부터의 별미밥으로 지금까지도 잔칫날의 필수적인 음식이 되어오고있다. 대추, 밤, 꿀, 잣등의 독특한 맛과 영양이어울려 영양의균형뿐아니라 간식이나 후식으로서의특성을보유하고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선요리의 하나인 신선로는 육류·해산물·각종 채소·은행·석이·호도등 그야말로 山海珍味를 총동원한 요리로서 나무랄데 가없다. 쇠고기 곰탕거리 두부 계란 흰살생선등으로 필수아미노산의 완벽을 기할수 있으며 미나리와 은행은 혈압강하제로서의 구실과 산뜻한 맛을 더했고 호도와 잣은 필수아미노산, 비타민E·F가 풍부하여 전체적인균형을 이루는데 한몫하고 있다.

쇠머리 다리 양지머리 사태 육등을 통째로 오래고아서힘줄이나 껍질에 많이들어있는 젤라틴을 용해시킨다음 차게 식혀서 굳히는 족편도 강장효과가 뛰어난식품이다.

한국의 果餠類는 茶食·油蜜果·蜜煎類로 크게 나눌수있는데 다식은 松花가루·밤가루·흑임자가루·콩가루·녹말가루등을 꿀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찍어서 무늬가 새겨지게 만든것이다.

다식류는 고열량식품으로 적당한 간식이 없던 시절엔 훌륭한 별미식겸 간식구실을했다. 특히 花粉을가공한 송화다식은 아주 훌륭한 건강식품의 하나다.

참께를 볶아서 간후 닭국물로 걸러 만드는 임자(荏子)水湯은 주로 삼복더위중에먹는 음식으로 여름철 체력관리와 영양공급에 매우좋은식품이다.

소의 뼈를 푹 고아 끓인 국물에 된장을 삼삼하게 풀어넣고 무우 파를 넣어 끓이다가 다시 선지를넣는 선지해장국은 염소 철분섭취가부족한 우리실정에서 매우뛰어난 음식이다.

吉凶賓事 어느때나 중요한 음식이었던 떡은 주재료가쌀이었고 부재료로 여러가지잡곡류를 활용하였으며 계절적

鄭相一 "나도 中毒된것같다"
拳鬪委선 관계자 合同會見주선

78년10월15일 WBA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 구시껜요오꼬(具志堅用高)에 도전, 5회KO패했던 鄭相一은 12일『나도 타이틀매치를 앞두고 약물에 중독된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권투위원회(KBC)는 가네히라 스캔들과 관련, 崔承哲매니저를 비롯하여 金賢治매니저및 金龍鉉·金煥珍선수를 합석시킨가운데 15일하오2시 뉴서울호텔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편 필리핀에체류중인 崔承哲매니저는 11일 KBC 鄭成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13일에 귀국하겠다고 밝혔다는것.

아마복싱聯 집행부 젊은 世代로 개편

대한아마복싱연맹은 12일 金成殷씨를 전무이사로 기용하는등 30대와 40대 초반의 젊은 경기인을 주축으로 새 집행부를 구성 발표했다.

복싱연맹은 앞으로 스포츠외교에 중점을 두기 위해 국제담당 부회장직을 신설했다.

◇신집행부 임원명단

▲회장=金丹濟 ▲고문=李台基·金明坤 ▲부회장=趙東河·吳寅寅 ▲전무=金成殷 ▲총무=梁亨錫 ▲심판=柳顯埈 ▲이사=李圭萬·徐正源·白泰吉·鄭申朝·金思容

여자排球대표후보 발표
女高선수 4명도 추가선발

대한배구협회는 12일 現代선수 6명을 주축으로 한 여자국가대표 후보선수 12명을 선발, 발표했다.

이들 12명의 평균신장은 176㎝ 평균연령 20세이다.

한편 협회는 오는15일부터 시작되는 춘계중고연맹전의 결과를 토대로 여고선수 4명을 더 보강, 장기계획아래 강화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표단 명단

▲감독=田好賢(現代) ▲트레이너=俞卿植(石油公社코치) ▲선수=金英淑·李恩敬·金貞順·金松姬·鄭琴仙·南明禮(이상現代)·李三任·李榮宜·諸淑子(이상美都波)·尙湖南精油)·朴申鎬(韓電)·陳春梅(鮮京合纖)

'藥物음모' 證人 崔承哲씨 眞相 그대로 털어놓을까
부채相殺한 動機도 아리송 事件직전 隱退公言 하기도
두차례 世界挑戰등 빅게임 金平과 손잡고 興行서재미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날조된 이야기인지 도대체 종잡기 어렵다. 日本의 週刊文春에 의해 가네히라(金平正紀) 흑막이 처음 터져 나온후 韓日 권투계와 매스컴의 관심은 이 사건에 개입한 日本경찰의 수사결과에 달려있다.

현재 가네히라 스캔들에 대한 국내의 반응은 둘로 쪼개져있는것같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고 반문하며 週刊文春의 폭로내용을 사실로 확인하는축이 있는반면, 일부에서는 가네히라와 週刊文春의 불편한 관계, 日本프로복싱계의 얽히고 설킨 人脈과 반목을 지적하며 가네히라를 궁지에 몰아넣기위한 계략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가네히라 스캔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日本프로복싱의 명예와 공신력은 이번사건으로 땅에떨어졌으며 덩달아 한국프로복싱도 큰상처를 입었다.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週刊文春의 폭로기사에 대한 흑백은 반드시 가려져야 하겠지만, 현재까지의 흐름을 지켜볼때 결정적인 증거를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週刊文春과 가네히라가 치열한 입씨름을벌이다가 승자도 패자도없이 유야무야도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

가네히라 스캔들의 被害者

◇崔承哲씨

사건속의 피해자로 보도된 金龍鉉과 金煥珍의 진술이 週刊文春의 보도내용과 다른점이 있으며, 金煥珍의 코칭스태프인 李浩然매니저, 金賢治 트레이너역시 약물중독설을 부인하는 태도.

추정은 12일현재 필리핀에 머물고있는 崔承哲씨(41·金龍鉉의 前매니저)에게 쏠리고 있다. 崔씨는 週刊文春 기자에게 가네히라 흑막을 폭로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의 입을 통해 金龍鉉-도까시끼 대전에 앞서 가네히라가 저질렀다는 오린지소동의 전모를 확실히 밝혀보자는것이 한국 권투위원회(KBC)와 국내 매스컴의 입장이다.

지난4일 崔在明선수를 데리고 경기차 필리핀으로 떠났던 崔씨는 11일밤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돌연비행기예약을 취소, 13일 귀국한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사고있다. 가네히라씨와 친교가 깊어 그의선수인 鄭相一과 金龍鉉을 구시껜에 도전시켰던 崔씨가 어떤이유로 칼자루를 바꿔쥐고 가네히라의 비행을 폭로했는지 수수께끼이다.

국내 권투관계자들은 崔씨가 지난2월 열렸던 KBC 대의원총회때 느닷없이 기자들에게『권투계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점을 중시하고 있다.

高峰見체육관서 아마선수생활을 한 경력의 崔씨는 5~6년전부터 흥행계에 두각을 나타낸 소장파. 그의 선수였던 鄭巡鉉이 강호 高生根을 KO로 물리친후 권투계에 이름이 알려졌으며 鄭相一과 金龍鉉의 매니저로 활약했다. 天安서 체육관을 경영하다가 C방적의 재정지원을 받아 忠淸프러모션을 창설, 흥행에도 관계했다. 27살때 日本에 건너가 新和도장서 복싱 수련을 쌓은 일도 있는 崔씨는 최근 건강이 나빠 고생 했다.

崔씨가 귀국하면 베일에 가려있던 사건내막의 일부가 벗겨질것으로 권투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金仁秦기자】

種別아이스하키
景城高 4연승 大一高도 대파

景城高는 제27회 전국종별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5일째 경기에서 大一高를 8-1로 대파하고 4연승, 예선 A조수위를 차지했다.

12일 동대문실내링크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景城高의 金三德과 金炯敏은 각각 2골씩을 넣었다.

仁川體高는 金泰縣이 1·2·3피리어드에서 각각 한골씩, 玄鎬輸가 2골을 넣어 慶熙高를 7-2로 격파, 2승2패를 기록했다.

◇제5일전적

▲A조

경성고교 8 (2-0, 2-0, 4-1) 1 대일고교

인천체고 7 (3-1, 3-0, 1-1) 2 경희고교

▲등순위=①경성 4승 ②휘문 3승1패 ③인천체 2승2패 ④경희 4패

街頭로나선 金融기관의「친절경쟁」

◇금융기관의 친절경쟁이 급기야 거리로 번졌다. 中央投資金融(사장 李龍萬)이 고객에대한 새롭고 정성어린 봉사를 다짐하면서 가두캠페인에 나선것. 은행에 뒤질세라 短資會社들까지 예금유치경쟁을 벌이고있어 새삼 눈길을 끌고있다.<12일 아침 8시30분 光化門 네거리에서>

全英배드민턴 李恩求는 탈락
朴柱奉 16강에

제72회全英배드민턴오픈선수권대회가 11일밤(한국시간) 런던 웸블리경기장에서개막, 한국의 朴柱奉은 남단식16강에, 黃善愛 柳尙希 金練子 金允淑등 4명은 여단식2회전에 진출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朴柱奉은 2회전에서 파키스탄의 타릭·파루크를접전끝에 9-15, 17-16, 15-12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李恩求는 2회전서 말레이지아의 잘라니·시데크에게 11-15, 9-15로패퇴, 탈락했다.

黃善愛는 1회전서 캐나다의 조안느·팔라도에 11-2, 11-3으로 쾌승, 2회전서 中共의 신인 우리시와 대결하게되었다.

◇첫날전적

▲남단식2회전

朴柱奉 2 (15-12, 17-16, 9-15) 1 파루크

▲동1회전

잘라니시데크 2 (15-11, 15-9) 0 李恩求

朴柱奉 2 (15-8, 15-3) 0 호킨슨

李恩求 2 (15-4, 15-7) 0 젠슨

▲남복식1회전

朴柱奉·李恩求 2 (15-6, 15-6) 0 옵스티·루테·퀸스틀러

▲여단식1회전

黃善愛 2 (11-3, 11-2) 0 조안느·팔라도

柳尙希 2 (11-7, 11-7, 11-12) 1 다까미·네가꼬

金練子 2 (11-3, 11-7) 0 마리·리더안

金允淑 2 (11-4, 11-3, 11-12) 1 진나이·기미꼬

"美에 기발한 防犯電子장치"
2중 실린더의 電光 자물쇠
赤外線 침입자 감식기가동
지갑속「패닉단추」경보장치

과거에는 군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나 쓰이던 장치들이 지금은 웬만한 미국가정에서 방범용으로 설치되어있을 정도로 전자기술의 발달과함께 도둑을 막기위한 전자장치들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2중실린더로된전광자물쇠, 자석식창문경보기, 적외선침입자감시기를 가동시켜놓고 경비견도 풀어놓으며, 지갑속에「패닉단추」라는원격경보기작동장치를 지니고 집을 나서는것이 오늘날 미국인들의 생활이다.

월남전쟁때 개발된 적외선장치는 사람의 체온까지를 감지하는데 경보기나 전기불을 켜며 경찰서에 경계신호를보낸다. 초음파장치는 실내에 고주파 신호를 가득채워 사람이 실내로 들어왔을때 반응형태를 감지해 낸다.

여러가지 소리가운데서 유리창이나 금속을 부수는소리를 식별하도록 과장을맞춰놓은 청각 감지장치도 있다. 초단파 등각감시 장치와 전자사진광선장치도 있다. 최근에는 마루바닥의 휘어지는 부분, 계단의 발침대를 감시하는 압력감지장치까지도 등장했다.

발자국소리를 탐지하는 진감지기가 있는가하면, 울타리의 진동을탐지하는복합충격감지기도등장했다.【外誌】

광고문의

☎

533—2361

토론토시

오늘의 쓰레기
내일의 자원

작년 토론토시 쓰레기 재생:
3,760 미터·톤의 신문지
560 톤의 유리
70 톤의 깡통

당신의 쓰레기를 재생하여 병들 깡통 신문지등은 에너지 자원 돈을 보존할 수 있다

시는 18군데 병 깡통을 위해 18군데 재생공장을 두고 매주 수요일 신문지를 위해 모퉁이 수집을 한다
(공휴일이 있는 주는 제외)

금주부터 재생을 시작함.

수요일 수집을 위해 신문 뭉치를 만들어 길 모퉁이에 놓으십시요 그리고 당신이 사는 가장 가까운 부근의 재생공장을 알려면 TRAC(The Toronto Recycling Action Committee) 367-7850으로 전화하십시요.

TRAC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함께 성장합니다!

캐나다 복합문화주의는 많은 프로그램을통해, 서로 당신의 문화를 공유하고 육성하는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캐네디안들은 서로를더욱 이해하고 바르게 인식할수 있읍니다.

함께 살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일하는
모든 캐네디안을위한
더 밝은 미래.

복합문화주의 Canada
Multiculturalisme Canada
Canada

안전하고 싼 호텔을 찾자

알뜰 해외여행

初心者를 위한 가이드 <2>

돈빠듯할수록 절박

일단 외국의 낯선공항땅에떨어진 여행자가 맨처음 해결할것은 호텔을 잡는일이다. 미리 국내에서 예약을해둔 경우라도 체재중에 호텔을 바꿔야할사정은 얼마든지 생긴다.

「값싸고 편리한호텔을잡는 요령은 무엇인가」

사실 모처럼의 해외여행에서 성패를 좌우하는것중의 하나가 바로 이문제라 할수있다. 주머니사정이 빠듯할수록 이문제는 더욱 절박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싸구려호텔만을 정할수도없다. 싸구려방이라도 얻으면 그나마 다행일때가많다. 도대체 방을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 많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호텔판매실적은 대체로 60~70%선에 맴돌고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의 호텔은 연중 만원사례다.

觀光철엔 별따기式

관광황금시기, 추수감사절, 연말연시에는 방사정이 더욱나쁘고 국제대회나 회의같은것이 겹쳤을때는 하늘의 별따기정도로 어려울때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파리나 로마같은 관광지의 중심도시나 東京·워싱턴같은 유수의 국제도시에서는 한수없이 경찰서에 찾아가 호소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그래서 해외에있는 공관원이나 상사주재원들은 서울에서 손님이 「관광철」에 닥치면 진땀을 빼게 마련이다.

호텔을잡는 가장확실한 방법은 물론 국내에서 예약을하고 떠나는 방법이다. 그러나 예약이 일반화돼 있는 호텔은 비교적 비싼 호텔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체인들은 힐튼, 하이야트, 세라톤, 홀리데이·인, 인터콘티넨탈 등을 비롯, 일류호텔들만이 예약제도를 신용있게 활용하고있다. 그밖에 3류호텔이나 호스텔, 여관, 여인숙등은 현지에 도착해서 전화예약을 하거나 그냥 찾아가는게 대부분이다.

빈방두고 손님거절

그러나 이경우에도 무턱대고 호텔을 찾아가 빈방을 달라고하면 곤란하다. 이들 숙박업소들은 그지역여행사나 여행안내소등과 긴밀한 연락망을 갖추고있어 여행사에서 소개하는손님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빈방이 많아도 그냥 찾아오는 손님을 거절하는 호텔도 상당수 있다.

파리유학생인P군은 느닷없이 12월24일 파리에 나타난 친지(여자)의 방을 구해보려고 파리의 밤거리를 4시간이나택시로 헤매며 수십개의 호텔을 돌락거린 기억이있다. 모두 만원사례. 결국 변두리 외곽지인 불르바르 주르당에 있는 3류호텔의 방하나를 가까스로 잡을수 있었다는것.

要求따라 즉석예약

P군이 현지사정에 밝으니까 다행이었지 그렇지않았다면 동양여자 혼자 어떻게해야 했을까. 서양남자중에는 홀로있는 동양여자는 약하다고 보는자가 많다.

유럽지역을 갈때 호텔에 예약이 돼있지 않으면 아쉬운대로 공항에 있게마련인 인포메이션·센터를 찾아 부탁할수가 있다. 대개가 여직원인데 손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해당호텔에 전화를걸어 즉석예약을 해준다.

案內所서 情報 언도록

지역사회 福祉館 운영업소가 염가

◇싸고안전한 호텔만 잡을수있다면 그 해외여행은 이미 절반이상 성공한 셈이다. 사진은 세계최대의 호텔체인 홀리데이인 콸라룸푸어.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지역에사는 친지나 아는사람을 찾아 안내를 받는방법이다. 주머니사정과 자신이다닐 지역을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싼호텔을 찾을수있기때문.

공항에서 호텔을 정하지않고 무작정택시를 타는일은 절대금물이다. 택시운전사에게 안내를 부탁하면 되겠지 하겠지만 신중팔구 바가지요금이나 봉변을 당하기 쉽다. 특히 미국이 그렇다.

아주 싼 비용으로 그래도 깨끗하고 안전한곳을 찾는데는 그나라 사회복지기관들이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하는것이다. YMCA호텔, 유드·호스텔은 웬만한도시면 다있을뿐더러 요금도 일반호텔의 3분의1이하에 편리한 시설을 두루갖추고 있다.

團體손님에 북새통

미국에는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호텔도있는데요금은 유드·호스텔수준. 그러나 단점은 한상만원상태라 방구하기가 특별히어렵고 요행히방을얻어도 20대청소년이나 단체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룬다는 것이다.

싸구려호텔은 대개 시내중심지서 멀리떨어진 외곽지대에있다는것도 알아둬야한다. 이경우에는 돈을아끼려다 시내왕복에 드는 택시비로 더많은돈을 쓰기가 일수고 호텔방에서 돈잃어버리는 사고도잦다.

가장비싼곳은 濠洲

해외여행자가 누구나 한번쯤 들르는 東京의경우 고급호텔도 그만큼 많지만 비교적 싼 숙박업소도 얼마든지 있다.

그대표적인 예가 비즈니스·호텔로 3평남짓한 조그만공간에 침대, 변소, 욕실을 갖추고 있다. 일본에서 여관이 싼것으로 생각하고 무턱대고 들어가다가는 바가지를 쓰기쉽다. 일본의 여관은 넓은정원과 격식을갖춘 다다미방을 갖추고있는데 웬만큼 그럴듯한게 보이면 일류호텔방값을 육박한다. 그밖에도 1명씩 들어가 누워 잠만 잘수있게해놓은 숙박시설, 전철역부근의 지저분한 여관등이 있는가 하면 거의 공짜로 잘수있는 국민한숙소도 도시마다 있다.

호텔값은 도시마다 호텔급수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유럽, 미국, 일본등에서는 아무리 싸구려라도 호텔이름이 붙은것이라면 1인1박에 50달러이상을받는다. 세계에서 호텔비가 가장 비싼곳은 濠洲로 1박에 1백50달러선. 그밖의 지역에서는 60~80달러면 일류급 호텔에서 하루를 지낼수 있다. 일류급은 별이 4개이상 붙어있는곳으로 호텔수 1천7백여개에 객실30만개이상을 자랑하는 홀리데이·인·체인이나 라마다·인, 셰라톤, 하이야트등이 여기에 속한다.

名目붙여 高價요구

유럽에서는 싸구려로 보여도 엄청나게 비싼값을 치러야하는 호텔이 많다. 이곳에선 명예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는터라 유명한 인물이 살던집, 또는 그가 자던방이라는등의 이름을붙여 삐걱거리는마루바닥에 낡은 침상을 내주고는 몇백달러의숙박비를 받고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모텔이나로지가 싸고 편리한 곳.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욕실이 있는가, 샤워가있는가, 화장실이 달렸는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가에 따라 요금은 정확히 차등이 매겨져 있다.

한달이상 장기체류때는 호텔에 미리 통고해야 할인혜택을 받을수있다. 홍콩싱가포르마닐라등에서는 여름철같은 호텔비수요기에 40%까지 방값을 할인해주는게 보통이다.

낮12시정산 염두에

일단 호텔에 들면 호텔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호텔은 낮12시를 기준으로 모든 계산을 한다. 보통 새벽이나 이른아침에 비행기에서 내려 호텔에 들어가면 하루치 숙박비를 더물게된다. 그렇기때문에 일단 짐을 맡겨놓고 간단한 산보나하면서 12시가 넘기를 기다리는게 좋다.

호텔에서 나올때도 마찬가지. 낮12시가 조금넘으면 특별요금이라하여 50%가 가산된다. 하오 6시가 넘어 체크아웃하면 하루숙박요금이 더가산된다.

호텔방냉장고에 든 음료수를 꺼내 마시는데 신경을 써야한다. 이음료수는 엄청나게 비싸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社會部=李鎭기자】

돈흐름이 달라졌다

貯蓄性예금늘고 短資등엔 감소

올들어 돈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잇단 금리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저축성예금이 꾸준히 늘어나는가하면 이보다 금리가 높은 短資나 私債등 단기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는 奇現象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계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11월이후 네차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지난 2월말 현재 銀行저축성예금의 잔액은 총12조9백4억원으로 작년말의 11조5천1백29억원에 비해 불과 두달만에 5천7백7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종별로는 기간중 ▲저축예금이 4천3백72억원이나 증가한것을 비롯▲정기예금이 2천7백31억원 ▲목돈마련저축이 5백6억원 ▲상호부금및 주택부금이 2백23억원 ▲정기적금은 6억원이 각각 늘어난 반면▲통지예금은 오히려 2천59억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저축예금증가세가 현저한것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차에 걸친 금리인하로 연15%로 낮아진반면 저축예금금리는 기간중 연14.4%선에서 고정돼 정기예금과의 금리차가 0.4%포인트로 좁혔기 때문인것으로풀이되고있다.

81년 한햇동안 무려 1조1천1백87억원(CP포함)의 신규자금이 몰려들었던 단자시장의 경우에는 지난2월말현재 수신잔액이 3조8백43억원으로 작년말의 3조2천1백58억원에 비해 두달동안 1천3백14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것으로 집계됐다.

私債시장도 올들어 계속된 거래부진및 公金利인하로 최근에는 금리수준이 A급기업어음이 月2.0~2.1%, B급이 2.2~2.3%, C급이 2.4~2.7%선으로 하락했는데 사채시장관계자들은 전체시장규모가 지난해의 2천억원내외에서 올들어서는 어림잡아 1천억원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시장의 경우는 지난2월말 현재 고객예탁금잔고는 4백29억원으로 작년말보다 2백36억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각종지표로 미루어볼때 올들어 시중유동성의 흐름이 안정성을 위주로 점차 건전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初中교사 人事에도 敎員적체상태 여전

82학년도 초중교원 인사이동이 실시된이후에도 忠南도내에는 교대출신 2백42명과 중등교원 1백15명등 모두 3백57명이 미발령상태로 있어 여전히 적체현상을빚고있다.

12일 忠南도교위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경우 지난해2월 公州教大를 졸업, 충남도에 배정된 4백73명중 24.5%인 1백16명이 대기중이며 금년도 2월에 졸업한 1백49명중에는 84%인 1백26명이미발령으로 대기상태에 있다.

또 중등교원의 경우도 영어·국어등 17개과목의 1백15명이 대기상태로있으며 적체현상이 가장 많은 과목은 영어25명, 국어20명이다. 【大田=聯合】

丹陽지방 토산품점 壽石 막구캐다팔아

최근 봄관광철이 시작되자 丹陽八景 月岳百景등 20여개소의 관광명소가 있는 丹陽·堤原·堤川지역 토산품점에는 수석과 괴석에 관상수를 캐다가 만든 분재가 줄을이어 진열된채 관광객들에게 팔리고있다.

이 수석과 괴석분재는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관광지주변에서 불법으로 채취한것으로 개당 최하1만원에서 보통 3~4만원씩에 팔리고 있는것. 【堤川=聯合】

鏡浦에 호화휴게실 民資3억유치 건립

관광지인 강원 江陵鏡浦지구에 연건평 4백평으로 2층규모의 호화휴게실이 세워진다.

江陵市는 86 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대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키위해 올해 3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鏡浦해수욕장 중앙통로를 중심으로남쪽과 북쪽에 각각 1개소씩휴게소를설치키로한것. 【江陵】

被疑者의 인권침해 여전 구속영장기각율 7.8%

忠南도내 경찰이 형사피의자들에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판사기각률이 아직도 7.8%에 달하고있어 피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12일 大田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2월말까지 2개월동안 지법에 청구된 4백47건의 구속영장중 35건이기각돼 7.8%의 기각률을보였다는것.

기각영장을 내용별로보면 ▲폭력과 강력사건이 15건으로 43%를 차지해 가장많고 ▲교통사범 7건으로 20%▲절도5건▲사기및 횡령 5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대해 법원의 한관계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민원을우려, 구속영장청구를 하는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인권보호측면에서 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宮人 申德順할머니

居昌 양로원서 외로운 餘生

高宗인산후 宮나와 62년간 떠돌이

李朝말 高宗황제의 어의(御衣)를 손수지었던 궁인이 경남居昌邑西邊里 군직영양로원에 생존하고있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있다.

이궁인은 당시 궁중에서 菊子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申德順할머니(76세).

申할머니는 高宗황제의 인산후 궁을나와 62년동안 전국곳곳을 떠돌며 갖은 풍상을 겪어왔으나 지금까지도궁중법도를 지켜가며 외로운인생을 살아가고있다.

경기廣州의 빈농에서 태어난 申할머니는 2살때 양친을여의고 고아로자라오다 친척들의주선으로 상궁의 양녀가된후 여섯살때 궁에들어가 궁인의 길을 걷게됐다는것.

철부지 어린나이로 궁인이된 申할머니는 「궁중법도를 익히는한편 어의를 만드는일을 배우게됐는데 당시만해도 어의를 만드는일은 성스러운 작업에 속했던것 같다.

작업실은 14평정도의 방으로 문은 바깥쪽을 송판으로 빛을 차단하고 다시 무쇠로 만든 철문을 달았으며 유리문·종이문이 있는 4중문이었다고 申할머니는 기억을되살리고있다.

마스크를 쓰고하는 이작업은 주로 어의에 궁중의 화공이 그려준 봉황·학·룡·구름등을 색실로 수를 놓는 일이었다.

옷의 바탕천은 공단이었고 조복 용포 곤룡포등을 주로 만들었다.

申할머니는 요즘 『TV 화면에 어의와는 걸맞지 않는 옷을 입고있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고 나무라면서 당시의 황제는 신하를 만날때와 제사를 지낼때등 의식에 따라 엄격하게 구별 어의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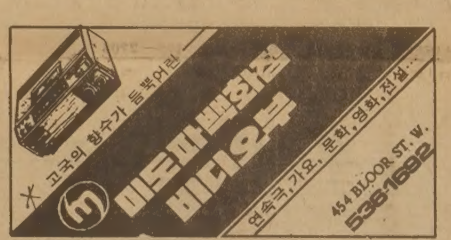
◇高宗황제의 御衣를만든 宮人 申德順할머니.

孤兒를 尙宮이 입양시켜 6살때入闕…御衣만들어 "TV극은 틀린것 많다"

또 일제의 강점후 정사를볼때 입은 신식제복의 경우에도 高宗황제는 상의 어깨위에 금단추 6개씩을 달았으며 황태자는 3개씩을 달았다고 회상했다.

한일합방으로 李朝가 멸망하자 이때부터 방황을 시작한 申할머니는 清州 公州 大田등지를 전전하다 지난53년 居昌郡加祚面一釜里에 정착하여 이웃들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계를 꾸려왔다.

申할머니와 함께 한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李임영할머니(71)는 『申할머니가 벼를 「화국」이라 부르는등 생활언어가 생소하고 몸가짐이 흐트러짐이 없을뿐아니라 상소리는 입에 담지도 않아 우리들이 많은것을 배운다』고 전했다. 【居昌=聯合】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오늘 쇼핑갔을때 당신 생각을했죠"

"그랬어?" "네… 그래서 새 코트를 하나 샀어요"

"내 생각을 했다고 말한것 같았는데!" "그랬죠"

"내가 그 코트얘길하면 당신이 얼마나 속상해 할까를 생각했죠"

팝토픽

오픈암스 首位 美캐시박스 톱텐팝

6주간 톱의 자리를 고수하던 게일즈 밴드의 「Centerfold」를 밀어내고 그룹 저니의 「Open Arms」가 이번주 美國 싱글판 레코드 톱텐의 톱을 차지했다.

「Open arms」는 2주전 5위에서 지난주 2위, 이번주 1위로 뛰어오른곡.

1위에서 밀려난 「Centerfold」는 2위에 머물러있으며 지난주 4위였던 스티비·원더의 「That girl」은 3위로 올랐다. 【AP】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영어설교 오후1:30 오후 2: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 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12: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3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저녁예배7:3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토요기도 밤7시 성경공부 2:40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30 4:0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금요저녁10:30 수요저녁 7: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주일오후 4: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웅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금요오후 9:00 성경공부 2:2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금요집회 밤8시 주일오후 4:30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주일학교 3:00 예배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성령교회	김관선	새벽예배(토,일):아침6시 금요성경공부:저녁9시 주일오후 2:00	379 Kenneth Ave.	275-4650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8548
이영두, 이건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식품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서 울 식 품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약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양장점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인벤토리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제 일 여 행 사
649 A BLOOR ST. W. (김 종조 종합보험 옆)
☎ : 535－2377
유 지원. 신 용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창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주보 ▪명함 ▪청첩장 ▪책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윤 홍 대 ☎ : 493－8894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 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 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8－7300 MISSISS.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A. Firm Accountant ☎ : 661－1819

학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한방원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신비의 생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라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태권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치과

Dr. Mark Kochman ☎ : 233－9454
(월, 토)9 : 00A. M～6 : 00P. M. (목)9 : 00A. M～9 : 00P. M. 3101 Bloor St. W. Ste. 203

流星의 賦

<331>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前의 燈火 ⑥

문헌, 특히 유성룡의 「징비록」이 기록한 사실은 사람들을 아연하게 한다.

이일이 상주(尙州)에 도착한 것은 4월23일. 상주는 텅텅 비어 있었다. 상주목사는 순변사를 영접한다는 핑계를 대고 어디론가 숨어버렸고 군관들도 역시 도망치고 없었는데 판관 권길(權吉)만이 남아 있었다.

이일은 크게 분노하여 권길을 끌어내어 목을 베려고 했다. 비겁한 놈들은 도망치고 없는데 그 비겁한 놈들에 대한 화풀이로 용감하고 충직한 사람의 목을 베려고 하는 심사가 무엇일까. 권길은 애원했다. 자기가 나가서 군사를 찾아 데리고 오겠노라고 한것이다.

권길은 사방을 뒤져 이튿날 아침에 그러저러 수백명의 농민들을 데리고 오긴했다. 군대편성을 했지만 하나같이 전투경험은 없는 사람들이었다.

적은 이미 24일 선산(善山)까지 처들어와 있었다. 개령현(開寧縣)의 백성이 달려와서 사태가 급함을 알렸다.

『왜군이 선산까지 왔습니다』

이일은 단번에 호통을 쳤다.

『이놈 넌 인심을 혼란케 하려고 꾸민 말이지. 당장 이놈의 목을 베라』

혼비백산한 백성은 빌었다.

『저는 거짓말을 한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왜적이 오지 않으면 벌을 받겠습니다』

적은 그날 밤 상주 남방 20리허의 장천(長川)에 와 있었다. 그런데도 이일은 정탐꾼 하나 내보내지 않았다.

이튿날 적의 그림자는 주위에 없었다. 이일은 개령현의 백성을 옥에서 끄내 한칼로 목을 베어 죽였다.

만은 유언비어는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을 민중에게 시범한 셈이었다.

아침 식사 후 이일은 신편(新編)한 군사들을 훈련한답시고 상주 북쪽에 있는 강변으로 데리고 가서 산을 등지고 진(陣)을 쳤다. 민군(民軍)과 서울에서 데리고 온 사람을 합쳐 8～9백명이었다.

진중엔 대장기(大將旗)를 세웠다. 이일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대장기 아래에 섰다.

종사관 윤섬(尹暹), 박호(朴箎), 판관 권길, 사근찰방 김종무(沙斤察訪 金宗武) 들은 말에서 내려 이일의 뒤에서서 민군들의 훈련광경을 보고 있었다.

이때 숲속에 수명의 사람이 배회하는것이 보였다. 이쪽을 보다가 저쪽을 보다가 하고 사라지는 품이 수상하기만했다. 병사들은 그것이 적의 척후(斥候)가 아닐까 하고 의심했지만 입밖에 내진않았다. 바로 그날아침 개령현의 백성이 목베여 죽는것을 보고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조금후 성중 수개처에서 연기가 오르는것이 보였다. 그때에사 비로소 이일은 군관을 시켜 정탐케했다. 군관은 말고삐를 두사람의 어름에게 잡히고 천천히 걸어갔다.

적병은 미리 다리 밑에 매복해 있었다. 군관이 다리를 지날 무렵 조총(鳥銃)으로 쏘아 말에서 떨어지게 하고 칼로 목을 베어들고 사라졌다. 먼데서 그것을 보고 있던 우리 군사들은 대경하여 실색했다.

난데없이 적이 대거 습격했다. 십여정의 조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총을 맞은 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일은 영을 내려 활을 쏘게했지만 수십보근처에서 화살이 떨어져 적병을 사하게 하진 못했다.

주식회사
이훈모 부동산
57 Cummer Ave.
(B)225－1204,
(R)636－1697
(휜치써브웨이 근처)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한국일보 각 식품점에 배달하실분 구함
(화요일과 목요일)
※영문. 한글타자에 능하신 분으로 식자 배우실분 구함(남. 녀관계없음)
☎ : 533－2364

가족처럼 함께 가게일을 돌볼 여자분 구함. 침식도 제공.
☎ : 1-727-3721

점심시간에 파트타임 Kitchen Helper 구함.
(오전11시～오후2시 Mon. － Fri.)
☎ : 421－6016 (오후2시이후 연락바람)

입주하셔서 3살된 아이와 가사를 돌봐주실분 구함.
신원 확실하신분.
☎ : 793－5531(부라말리지역)

입주하셔서 애기(5살, 1살, 6개월) 봐 주실분 구함. 돈·밀지역.
☎ : 429－6838(R), 499－4459(B)

출퇴근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오후 5시 이후 연락바람. (돈·밀지역)
☎ : 749－4061

가정부 구함
어린애 둘 돌보실분 구함(침식제공)
월 : $500 브람톤(Brampton)지역
☎ : 456－0567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 : 284－9325, 282－3353(스카보로지역)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2베드룸 아파트
주매상 : $4,000 재정명세서 있음.
건강상의 이유로 매매코저 함.
☎ : 763－5161(Cliff or Joe)
Cimerman Real Estate Ltd. Realtor.

가게급매
가격 47,000불 ＋ 스탁
☎ : 1-877-6463, 883-4550 Mr. 김

① 도너츠와 햄버거
도너츠 주매상 : $4,500 햄버거 주매상 : $2,500
비데오 머신에서만 월수입 : $10,000
요구액 : $289,000
②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500(일종의 Tuck Shop)
요구액 : $32,000
③ 점포와 3베드룸 아파트, 요구액 : $82,000
이 훈모 부동산 ☎ : 225－1204

비데오 아케이트 세일
15머신＋REFRESHMENT라이센스. 아스킹 : $30,000
☎ : 691－8337(Mr. 진 : 12시이후 연락바람).

버라이어티 & 밀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500～$4,000
렌트 : $525 (월) 비데오 머신 있음.
아스킹 : $25,000 ＋ 스탁
관심있으신 분 연락 바람.
443 Kerr St. Oakville. ☎ : 844－6741

생선가게 팝니다. (퀸스웨이×로얄욕)꼭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K & R(Sea Food)
☎ : 259－1585(Mr. Joe Bondreau)364－3883(Frank)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1900 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 (Gladstone 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BASKIN ROBBINS
아이스크림 가게 매매
—년매상 $150,000이상(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케잌)
—가격은 면담후 결정함.
—토론토에서 약 70마일거리로 Mall안에 있음.
—사업은 보장됨.
—개인사정으로 좋은 가격에 급매코저 함.
360 George St. N. Peterborough ONT.
☎705－743－3152 Mr. 유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쿨러(10ft. 2개 $2,500)
★밀크오픈쿨러(10ft. $2,000)
★오픈 후로즌(10ft. $2,000) ★저울($800)
1503 Bayview Ave. ☎ : 485－9419(Mr. 최)

카테지(8채)공원을접한 해변가까이 있음
2베드룸(2채). 1베드룸(4채). 배추러(2채)
아스캉 : $99,800. 다운페이먼트 : $35,000

아파트 밀집지역 건너편 광장안에 위치한 바쁜지역의 버라이어티 가게와 기프트가게($26,000)
드라이크리닝($13,500)
Doris Burda ☎ : 763－5555
R. Cholkan Co. Ltd. Realtor

사무실·점포 렌트

사무실 렌트 원하시는 분
— 600 sq. ft (2층)
— 500 sq. ft (3층)
☎ : 921－2304 Mr. 최
830 Yonge st. (영 × 블루아)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140 독신자 환영
Pape Subway 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가구달린 베드룸 세놓음
독신자 환영(월 $200)
565 PAPE AVE. ☎ : 439－7093

기관및단체

●총 영 사 관 : 598－4608
●한 인 회 : 755－9288
●노 년 회 : 755－8079
●실업인협회 : 752－7771
●Y M C A : 536－1166
●외 환 은 행 : 364－2890
●한 일 은 행 : 865－0456
●무역진흥공사 : 977－8784
●K A L : 862－825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766－4770 김봉균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간 판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62－5194(여정룡)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범한서적주식회사 북미총판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1712 Queen St. E. Tor. Ont. ☎ : 690－2216 Mr. 최규출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B) 449-8644～5, (R)286-1548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랑) ☎482－0166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 : 533－7966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포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Mr. Kim
시설및 수리(상. 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 : 425－8585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소 싸우나 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시까지
토 오후 4시30분부터～새벽 1시까지
일 오후 4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88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 한국일보 안내광고 *